



“인간과 환경과 기술의 조화”

환경과 문명이 조화를 이룬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현대—
현대는 하늘을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창조합니다.

지상 1500미터 높이의 3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
빌딩 하나가 거대한 도시 역할을 하는 이러한 꿈의
빌딩이 머지않아 우리 손으로 세워집니다.

미래형 신공간 창조라는 목표아래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아들을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現代建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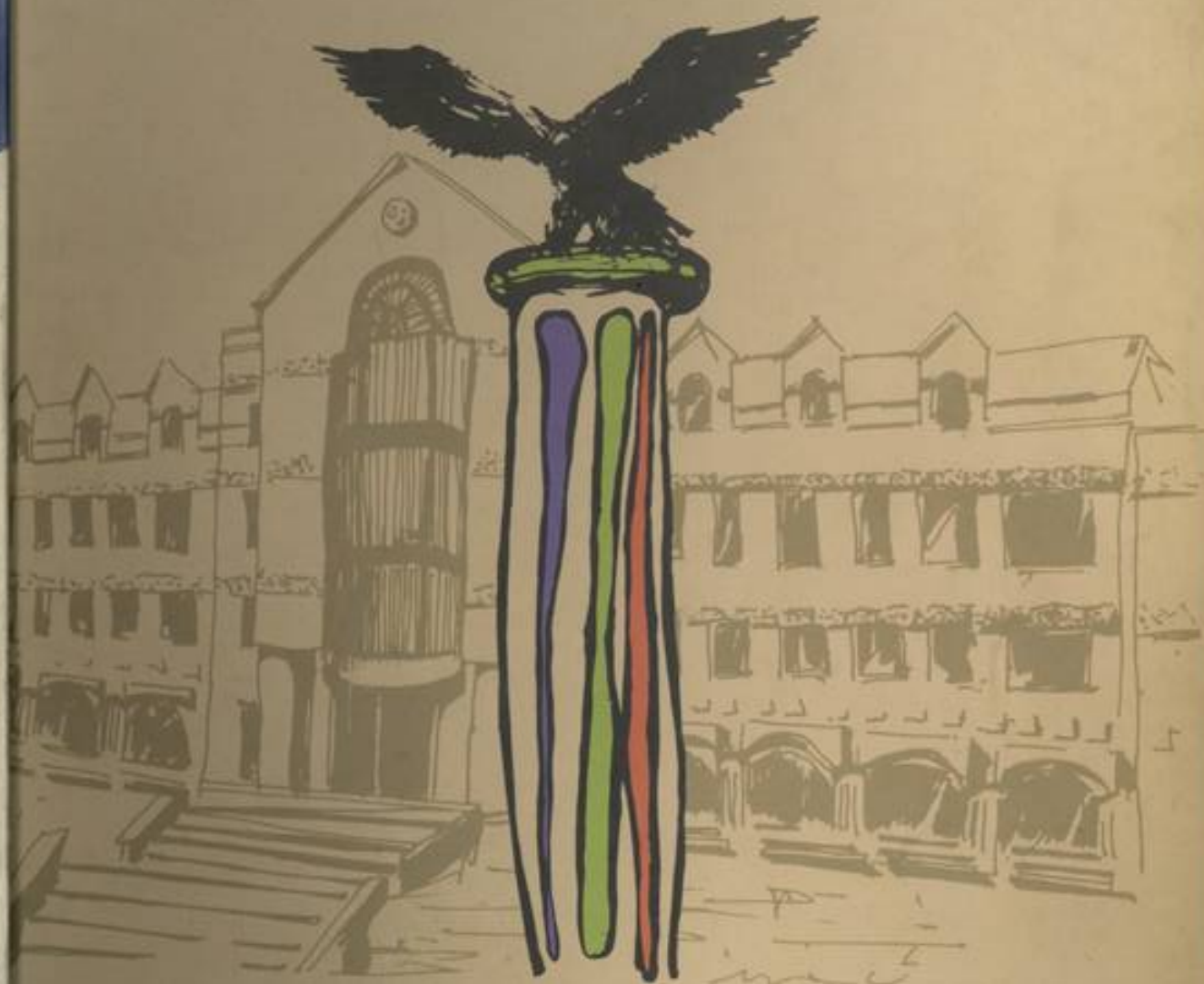
현대건설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은
이미 지상 1500미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고층빌딩, 아파트, 호텔, 병원, 연립주택—
21세기 첨단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기술과 경영, 그리고 불어오는 노력이자 사명감
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건설사로서
우리의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세백양

Vol. 2 1993. 8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편집/여성신문사(565-0071~6)

적극적인 참여와 힘찬 성원이 있으시기를...



이상희/여동문회장 58년교육학과졸

연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남녀공학을 실시하였고 여성에게도 배울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 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앞장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연세에서 배출된 많은 여성인력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기의 능력을 전문영역에서 발휘하고 사회에 환원하여 공헌한 면도 많았지만, 반면에 결혼하고 난 후 가정에 사장시킴으로써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 많은 손실을 초래 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의 잠재된 능력을 재개발하여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79년 백양모임이 조직되었고 그간 학술세미나, 문화사 강좌, 서예 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기금조성을 위해 김밥도 말아서 팔았고, 개교기념일에 연세마크가 있는 T 셔츠를 판매하는 등 백양모임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문과 임원중심의 소그룹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전체 여동문이 참여하는 여동문회로서의 발전이 요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13개 단과대학에서 65명의 이사를 추천받아 이사회를 조직하였고 앞으로 이사인원을 늘림으로써 여동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한 자기 재발견의 기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선후배간의 만남의 기회도 넓히면서 정보교환과 자기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만 함께 자라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봄학기에 여학생처 주관으로 자기발견, 자기설계,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 여성자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음은 노력의 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모교를 찾은 우리 동문들이 선후배간에 마음놓고 대화도 나누고 의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주로 교수식당을 이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 새로 건립되는 동문회관에 사무실이 마련될 것입니다.

재학중인 여학생들에게 여동문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화의 장을 마련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의류, 책, 가방, 구두 등 재화용품을 수집·전달하여 여학생회에서 싼값에 판매하여 50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도 수집·전달하여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졸업을 앞두고 진로 때문에 고심했던 선배들의 경험을 살려 언론계, 금융계, 행정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을 초대해서 사회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 일과 함께 선후배간의 유대를 두텁게하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선후배간의 만남의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

1990년에 발간된 「연세백양」 1집에 이어 2집을 발간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동문들의 소식과 활동도 널리 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백양모임 회장과 역대 및 현 여학생 처장 그리고 총장 사모님과 방우영 회장 부인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여동문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총장 사모님의 후원으로 총장공관 잔디밭에서 5월에 여동문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오래간만에 5월의 신록이 눈부신 꿈 많은 모교에서 선 후배간의 우의를 다지고 모교의 발전소식도 들으며 즐겁고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동문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힘찬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봉사로 누룩의 역할을...



송자/총장 59년상학과장

먼저 연세대학교의 여동문회가 주관하는 「연세백양」 2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된 지 벌써 한돌이 지난 「연세백양」은 여동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백양회가 출발이 된 지 여러 해 만에 「연세백양」을 발간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널리 알려진대로 연세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남녀공학을 실시한 대학입니다. 1946년에 여학생들에게 문을 개방한 이후, 연세대학교에서의 여성교육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남학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진취적인 능력을 함양시켜온 결과, 한국의 여성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학내에서 여학생의 숫자도 날로 증가하여 현재는 학부생의 2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대학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연세 안에서 진리추구 정신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동문들의 모임인 백양회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마음 뿌듯합니다. 백양회는 14년 전에 연세대학교의 여동문 중에서 일부만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실상부한 여동문회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활동영역도 친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학술강의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여성 지도자로서의 교양과 지식을 함양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교를 위한 장학사업은 물론 학교와 여동문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양회의 이와 같은 발전은 여동문들의 애교심과 진취적인 참여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또한 연세정신의 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세 여동문들의 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가 한 국가의 선진화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각국에서 많은 여성지도자가 배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명시대를 맞아 눈에 띄게 여성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여러 관점에서 구조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밖으로는 정치적 이념에 의존하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
연세 여동문들은 사회적 병폐를
바로 인식하고 참다운
인간애와 사랑, 봉사의 정신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진화된 의식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사회화되어 많은 영향을 발휘할 때 바로 누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여동문들은 무악의 얼을 생활속에 반영하여 모든 일에 사랑과 봉사로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와 사회단체, 직장 등 모든 조직 속에서 참여와 봉사로 누룩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학교와 사회에 되돌려주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언제나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의 자원봉사대로 활동하는 것도 간단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단체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발전하였지만 이와 비례하여 비인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여동문들은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바로 인식하고 참다운 인간애와 사랑, 봉사의 정신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선진화를 앞당기는 첩경이 됩니다. 앞으로 여동문회는 이러한 활동을 강화하여 연세의 참된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우리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연세백양』 2호 발간을 축하하며



방우영/총동문회장 49년상학과졸

3년 전에 『연세백양』 첫호를 냈던 여자동창회가 이번에 제 2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이 지면을 통해 여성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희 회장이 취임하고 난 후였던 작년 5월말 모교 총장공관 잔디밭에서 열린 여자동창회 모임에 초대됐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화창한 봄날 맛있는 불고기 파티도 매우 즐거운 일이었고, 또 중년의 여성동문에서부터 갓 졸업한 옛날 동문들까지 뒤섞여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흐뭇한 정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동문회가 단합하여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점점 숫자가 늘고있는 여성동문들의 역할이 더욱 중대되어야 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셨던 심치선 동문도, 한양순 교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 이상희 회장은 동문회관이 완성되면 여자동창회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문회관 준공이 기다려진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친애하는 여성동문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금년 5월은 우리 연세대학교 동문회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애쓰면서 뜻과 정성을 모아 한장 한장 벽돌을 쌓아올린 동문회관이 드디어 완공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처럼 좋은 자리에,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하고 쓸모있게 세워진 동문회관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연세동문인 우리들만의 자람이 될 것입니다.

12만 동문을 묶는 우리 동문회의 활동도 이 회관을 근거로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여성동문들의 역할도 이 동문회관의 준공을 계기로 돋보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처럼 훌륭한 회관을 갖게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동문회관이 갖는 의미와 용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문회관은 첫째, 우리 12만 동문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문회 사무국이 자리잡는 것은 물론, 각 단과대학 동문회 사무가 한데 모이게 됨으로써 훨씬 긴밀하게 협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문들의 크고 작은 모임들이 끊임없이 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모임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젊은 동문들은 물론 우리 동문 자녀들이 결혼예식을 올릴 수 있는 서울에서 제일가는 결혼식장이 들어서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부대시설이 마련됩니다.

“오랜 숙원이던 동문회관이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학교발전을 위한
도약의 자세를 갖추어야겠습니다.”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세가족’ 뿐으로, 연세대학을 나온 것이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입니다. 다른 대학 출신들은 “나도 연세대학을 나왔더라면 저 예식장을 쓸 수 있을 텐데...”라고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동문뿐 아니라 젊은 후배 재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활기에 가득찬 동문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이를 위해 발랄한 대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영화들을 상영하는 미니상영관, 그리고 작지만 아담한 연극무대, 세미나실, 그리고 식당과 다방 등 우리의 후배 재학생들은 이같은 동문회관 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졸업 후에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또 모교와 동문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는 동문들이 될 것입니다.

넷째, 동문회 사무국 옆에는 우리 모교의 교내기구인 「발전동문사무국」이 나란히 자리잡을 것입니다. 올해에 출범한 「발전동문사무국」은 쉽게 말해 학교와 동문회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동문들의 힘을 결집시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구입니다. 저는 송자 총장님이 이 기구를 발족시킨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로 인해 모교와 동문회가 더욱 번영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그 동안 연세백주년기념관 건립, 용재 백낙준 박사 동상건립, 그리고 이번에 준공되는 동문회관의 건립 등, 생각해보면 학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숨가쁜 마라톤을 해온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여성동문들의 참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문회관이 마련되었으니 잠시 맘도 닦고 숨도 돌리면서 어떤 것이 우리 동문들에게 유익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길인지에 대해 생각을 가다듬고 도약을 위한 자세를 갖추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여성동문 여러분!

모교를 졸업하는 여성동문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1년에 1천2백명 안팎의 여성동문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여성의 역할은 커지고 사회적 지위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우리 동문회에서 여성동문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동문회관 준공을 계기로 더욱 결집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동문들의 소식을 엮어주면서, 대화의 광장역할을 해야할 『연세백양』의 존재가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연세백양』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자주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제2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모두 한 식구임을 확인합시다



윤선/여학생처장 71년식품영양학과출

안녕하십니까?

지면을 통해서나마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2년 가을 학기부터 여학생 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회 임원으로 여학생처를 드나들던 게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자리바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맡고부터 생긴 3가지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병은 외로움과 불안이 번갈아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장 빈번한 학생회 관에 자리한 여학생처는 의외로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5천여 명에 이르는 여학생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특별히 여학생처에 붙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학생처는 이름뿐인, symbolic한(?) 행정부처이고, 연세만이 배줄 수 있는 배려(?) 속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다가 내 할 일 쫓겨두고 이러한 한적에 쫓겨왔나 싶었습니다. '여학생처를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아무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논지방을 찾아갔습니다. 논지방은 제가 학교를 다니던 6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지만 너무 낡고 늙어서 들어서기조차 섬찟했습니다. 그 곳에는 서너명의 여학생들이 있었고, 월동준비를 하느라 연탄난로가 곧 설치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연세대학교에 연탄을 때는 곳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남녀공학에서 여학생 전용공간이 왜 필요한가?'라는 도전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그 존재의의조차 인정받지 못한 논지방은, 버려진 채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번째 병은 논지방 보수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자대학이 해마다 가을에 바자회를 하는데 수많은 동문들이 몰려들어 성시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해 보자고 나섰습니다. 우리 여동문, 그리고 재학생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이 나 되는데 안될 게 없다는 것이 제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사연과 논지방의 노오란 은행나무 밑에서 모뎀 모시 기다리겠노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고보니 부칠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보일라, 꼭 꼭 숨어라' '꼭 꼭 숨었다' 하고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디에 숨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사에 겨우 부탁해 우리의 사연을 실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때 생긴 병이 상사병입니다.

세번째 앓고 있는 병은 햇병입니다. 가끔씩 우울증도 나타납니다.

어떤 치료방법이 있을지,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심해질 때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하는 길만 걸어왔는데, 죄가 된다면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외곬수로 살았다는 죄박에 없는 데... 전국 각지의 똑똑한 여학생은 다 모아 놓고, 남녀공학의 선구자로서 고급 여성인력을 배출해

“
제가 학생처장 자리를 맡고부터
3가지 병이 생겼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이 번갈아 나타나는 증세,
상사병, 햇병이 그것입니다.
”

왔다고 자부해 왔지만, 사회 어느 곳을 가도 우리 여동문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을 마치면 곧바로 시집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여자들은 남자의 '조용한 내조자'가 되기를 요구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동문들은 나를 내세우기 보다 현치와 양모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숨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 근래 여동문들을 만나면서 겪는 또 하나의 갈등은 정작 용기있게 진로를 개척하려 해도 고급 여성인력이 갈 곳은 없다는 것 입니다. 외곬수로 학문에만 정진하다 고국에 돌아온 여동문의 경우는 더 합니다. 그들 앞에 굳게 닫힌 철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듯, 절망감은 그들 삶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병은 고치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논지방은 고쳐졌고 '여기도 학교냐'고 의아해 하는 소리는 '공중변소'라는 별명이 붙었던 논지방이 'Hotel 라운지' 같이 변했기 때문에 나도는 요즈음 학생들의 환호성입니다. 연탄난로가 온풍기(김혜영 동문, 연화구락부 기증)로 바뀌었고, 책·걸상이 들어오고, 개가식 도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시청각 기기가 설치되면 학생들과 뜻을 논하는 논지방(論志堂)의 본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 동문님들과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학교와 현대건설, 그리고 추애주·김정국 회장 부부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여동문들을 만나지 못해 생겼던 상사병도 요즈음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아쉬운 대로 몇 십명의 여동문들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단과대학에서 65명의 여자동창회 이사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장을 죄는 듯한 아픔과 답답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로 연세는 남녀공학을 실시한 지 47년이 됩니다. 인간 발달을 논하는 학자들은 40대 중반을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며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동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여성자원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터전을 만들 때 명실공히 우리의 활동 무대가 보장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여성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연구와 정보제공, 그리고 여성인력을 사회화하는 현장과 대외 협력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들이 꾸는 한낱 꿈으로 그칠 것인지, 하겠다면 해 낼 수 있는 여성능력의 결실로 나타날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연세 여동문의 상징, 우리 인생의 회노예락을 함께 할 삶의 동반자가 될 여성자원센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같이 할 연세라는 이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자랑스러워지기를!



남녀공학의 산물

- 여동문의 변

문은희/연대강사 64년교육학과졸

이 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이웃 여자대학교의 여교수를 연세대의 한 좌담회에 모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연세대학교를 지칭할 때마다 '남자대학'이라고 해서 몇 차례도 '남녀공학'이라고 고쳐드려야 했던 기억이 있다. 여자대학에 익숙하게되어 대청해서 그렇게 불렀으리라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교는 바깥 세상에서 남자만의 대학으로 비쳐지고 또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여학생의 수가 이제는 전체의 1/4을 차지하게 되었는데도 사회에 나가보면 활동하는 여동문이 '가름에 콩 나듯'도 못한 것을 보고는 실망과 함께 학교에 손해라는 학교 당국의 은근히 찌푸린 표정에 눈치가 보인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여자 동문들은 몸들바를 모르는 처지에서 애매하게 지극어 있다.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남학생들 못지 않게 야무지고 똑똑한 여학생들이 자랑스럽고 흐뭇했다. 그런데 바깥 세상에서는 왜 우리 여동문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아쉬움이 컸었다. 이웃 여자대학교 출신들은 여기 저기에서 활발하게 봉사하고 또 선후배가 서로 이끌어주고 따르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안될까 하는 물음이 마음 속에서 자꾸 커지게 됨을 막을 수 없었다. 4년, 6년 또는 그 이상을 백양로를 거쳐 다닌 대학생활로 우리의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또 다른 배움터를 마련해서 우리 서로 용기를 북돋우고 그 동안 각자가 익힌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개들게 되었다. 「백양모임」이 그렇게 해서 비롯되었다. 그런데도 여학생과 여동문들의 삶을 충분히 흔들어

놓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며 머물러 있음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남녀공학의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우리 사회가 남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곳이므로 그 사회에 걸맞은 교육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녀 각기 그 역할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었던 전통사회에서는 남자만 바깥 활동을 하고 여자는 집안살림과 자녀 키우기만을 맡아왔었다. 그런 전통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여성을 위한 대학교육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남녀공학의 존재가 요구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은 사회와 더 좋은 가정과 그 속에 남녀가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목표로 남녀공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남녀공학대학이 남성들의 삶을 위해서는 기여하면서 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자 동문들의 전 생애가 모두 대학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는 것이라 보고 이를 생각해 보려 한다.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에 와서 어떤 교육의 과정을 거쳤기에 졸업한 후에는 여자대학 출신보다 활발하게 살지 못하고, 열자리에서 함께 공부한 남자들보다 움추려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려 한다.

우선 여학생은 받아들여 가르치고 졸업시키지만 남자만의 대학이라도 되는 듯이 그 본질과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학, 생활과학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여학생은 '덤'으로 존재하는 듯이 여긴다. 여학생들이 과반수인 학과에 여자교수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많고, 여학생이 대학원 진학을 하려 하면 교수가 '시집이나 가지'하며 격려하지 않는

다. 해외에서, 그것도 좋은 대학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여동문이 박사학위를 받고 와도 해당 학과의 선배교수들이 관심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안타깝게도 자주 보게 된다. 남자만의 대학이 아닌데도 남자만을 키우려 한다면 남녀공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남녀공학을 굳이 하려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몇 해를 보내고 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 곁에서 움츠러들고 암전하게 여성다워진다. 여자대학에서처럼 과대표에서부터 학회장, 총학생회 대표 모두 여학생이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남학생들이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여학생은 의례적 부회장 자리를 도맡는 것이 고작이다. 결정적인 일을 할 때에는 부회장을 제쳐놓고 총무인 남학생이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학생들과 활동하고 공부하면

서 남자들의 취향과 속성을 알게되면서 마찰을 피하고 타협하며 안일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지내다가 바깥 세상에 나가 결혼하고 직장도 가지면서 가정과 일 외의 다른 일에는 대학 때 비롯대로 여전히 소극적으로 살게 된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남녀 역할분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여동문들은 그 속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할 만 하게 지내고 있다. 전통있는 여자대학에서 이미 선배들이 여성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대로 한 몫을 하기는 어렵다. 여성들 틈에서 서로 '언니', '동생'하는 모양새에 익숙하지도 않고, 기분으로나마 남녀가 대등하게 지낸 바깥은 있어서 여성 사이의 순종과 협력은 자존심 상하는 일로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여성계에

참여한다 해도 오래 견디지 못하곤 한다. 어디서나 피곤하게 따지려한다는 평을 듣고 그런 태도가 용납되기 어려운 우리네의 권위적인 풍토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만다.

이제 우리의 자세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발을



간호학, 생활과학
그리고 음악을 전공
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여학생은
'덤'으로 존재하는
듯이 여겨진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원국 진출의 의미



최신덕/정무제2
장관실서기관
67년 법학과졸

우리나라는 지난 4월29일 유엔의 여성총회라고 할 수 있는 여성지위위원회의 회원국으로 피선되었다. 21세기를 바로 앞에 두고 국제화가 우리나라 여성발전에 미칠 영향은 종전보다 매우 클 것이므로 여성지위위원회를 포함한 유엔의 여성관련 업무추진체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여성활동 방향에 관하여 약속하고자 한다.

●유엔의 여성관련 업무추진체제

1945년 유엔의 창설과 더불어 유엔 헌장에 명시된 '인종·성별·언어·종교에 의한 존중'이라는 원칙에 의거,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에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는 여성사업을 추진하는 핵심기구가 되었다.

주요 기능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검토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제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권고와 보고를 하고 각국의 정부·비정부기구, 전문기구들과 여성발전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당시에는 15개국이 회원국이었으나 현재 회원국은 45개국이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업적은 1950년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1962년 혼인의 동의, 최저연령 및 신고에 관한 협약, 1967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 등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성지위위원회가 활성화 된 시점은 1975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1976~1985년을 '유엔 여성 10년'으로 설정하여 제1회 여성회의를 멕시코에서 개최하였다. 평등·발전·평화를 주제로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세계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1980년에는 제2회 여성회의를 코펜하겐에서 열고 10년 사업의 중간 평가를 하였고 회의부제로 교육·고용·보건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선언을 근간으로 198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채택토록 한 것을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1985년에 10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제3회 여성회의가 나이로비에서 다시 열렸다. 이때 세계의 여성들은 인류역사상 가장 긴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차별이 평등을 획득하기에 10년은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372개항에 달하는 '2천년을 향한 미래발전전략(일명 나이로비 발전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현재 세계 각국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지침이 되고 있다.

1995년에는 제4회 여성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는데 '2천년을 향한 미래발전전략'의 각국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81년에 채택된 여성차별협약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23인의 위원이 각 국가가 지명한 법률·정치를 비롯한 여성전문가가 입후보하여 선출되며 개인의 자격으

내디더야 할지 망서리게 된다. 잠시 멈추어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자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우리끼리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성들이 하는대로 하고 또 남성들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기죽어 살고 싶지도 않다. 남성만의 사회를 위해 준비하는 남성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 우리 여성은 교육의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다. 남녀공학이라는 이름과 실체가 일치되는 교육을 받아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 참된 남녀공학이 되어 아직까지도 제대로 남녀 공동의 사회가 되지 못한 바깥 사회를 자극하고 바르게 바꾸는 인물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남녀공학인 우리 대학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남녀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서 더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평생의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여동문인 우리도 자신들의 성장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한 뜻깊

은 공헌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낌없이 봉사해야 한다.

다른 누가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보는 대로 필요를 느끼는 대로 앞장 서고 서로 도와가며 실천해야 한다. 봉사하는 것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또 봉사해 보면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의 기회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맛보게 된다.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머리'로만 살지 말고, '머리'와 '가슴'과 '손'을 다 갖춘 여성으로서 남성들의 삶과도 다른 삶을 살 권리를 지키고 또 여성의 삶의 진가를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서로 존중하며 아끼는 평화와 사랑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꽃피울 수 있게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삶과꿈

작은 책 하나가 나의 생활을 바꿔줍니다



- 1권 1,500원
- 1년 정기구독료 13,000원

'삶과꿈'에는 생활의 지혜, 꼭 알아야 할 교양, 평범한 사람들의 알찬 꿈 등,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쉽고, 재미 있고, 유익하게 담겨있습니다. 아직 접해보지 않은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백에 들어갈 만큼 작은 책이지만 손에 든 순간부터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20%할인 해드리는 북클럽 회원도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브랜딩백화점) 2608호 전화 319-9791, 775-3639-9057 팩스 773-5923

도서출판 **삶과꿈**



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92년 12월 현재 117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비준서를 기탁하여 1985년 1월 당사국이 되었다. 당사국의 의무사항은 비준후 1년 이내에 협약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4년 또는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응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진정서처리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각국에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때 개인이나 단체 등이 제출한 진정서를 처리한다. 그러나 진정서처리실무위원회는 정치형태, 인권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각국은 특별히 자국의 입장에 관심을 갖게 된다. 아울러 여성정치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진정서처리실무위원회의 집행업무는 비엔나 유엔사무소에 있는 여성발전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비엔나에서 뉴욕의 유엔본부로 이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유엔 여성 10년 사업의 일환으로 1976년에 설치된 국제여성연구훈련원과 유엔여성발전

기금이 주로 개발도상국의 여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발전에 있어 여성통합과 연구훈련사업, 여성문제에 관한 관심고양을, 후자는 농촌과 도시의 빈곤 여성을 사업의 중점대상으로 하며 개발계획에 여성문제를 포함시키는 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5개 지역위원회가 해당지역의 유엔여성사업을 실시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기구간 업무와 각국 업무를 조정하고 수행한다.

이외에도 유엔의 16개 전문기구중 UNESCO, ILO, WHO, FAO 등도 기구내 규약에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성지위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하고 채택되는 현안을 해당기구 사업으로 계획, 수행하며 보고도 하게 된다.

이상의 여성사업추진조직이나 국제규범이 특히 1975년부터 활발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190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 여성들과 독립국가 여성들의 여성운동은 참정권이 그 목표였다. 제2차 대전이후 그 국가들은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 하였다. 특히 미소양국 체제의 냉전이 60년대 말까지 지속될 동안 유엔관련 여성기구나 국제기구에서 여성문제는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신생독립국가 아프리카등지에서 주권을 갖게되고 동서양분에서 화해의 시대가 전개되고 여권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는 명분을 갖게 되었다.

서구여성들이 추구하는 평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주장한 개발과 더불어 여성이 평화를 위한 사업에 공헌하기 위한 참여가 유엔을 자연스럽게 국제적 구심점화 한 것이다. 그리하여 유엔 관련 여성기구는 각 국가마다 현실적인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 지켜야 하는 보편적 전략을 제시하고 일정수준까지 여성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관련사업추진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가 국제화 추세에 본격적으로 여성문제를 연결시킨 것은 1975년 제1회 여성회의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시안에 관하여 표결권을 행사하고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959년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과 1962년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는 하였으나 1975년 제1회 여성회의와 제2회 여성회의시 정부대표단이 파견되었다.

그후 우리나라는 친족상속법의 일부개정과 여성개발원을 설치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사업을 이행하였다. 1985년 제3회 여성회의에도 정부대표단이 파견되었으며 특히 제6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부분에 여성부분을 독립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후 1986년부터는 해마다 여성지위위원회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국가의 여성관련조직을 신설하고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1988년에 설치된 정부장관실(II)과 시·도의 가정복지국 신설, 시·군·구의 가정복지과를 둘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개정,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법, 미취학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91년에 발효된 개정 친족·상속법은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1992~1997)에도 여성부분이 독립적으로 국가발전계획에 포함되었고 남녀차별철폐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개정, 세무대·경찰대·농협대·철도전문대에 여성입학제한도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동안 유엔에 가입되지 못하여 각종 위원회의 결의나 권고를 이행하면서도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국 진출은 1991년 유엔가입으로 비로소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시안에 관하여 표결권을 행사하고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4회 여성회의는 아세아권에서 열리는 이점을 고려하여 정부대표단 이외에도 비

정부기구인 여성단체가 대거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법을 이해하여 세계속의 한국 여성의 좌표를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제규범과 권고내용에 따라, 국내의 여성사업을 선진국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여성차별철폐비준당사국으로서 협약이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제2차 보고서 심의가 있었다. 그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 이행에 관한 총평은 아직도 한국사회에는 여성차별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광복후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의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그후 새정부는 3명의 여성장관을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국제적 수준에 못 미치는 여러부분은 정부, 여성단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가입과 더불어 우리가 기여하는 공여금은 그전의 0.2%에서 0.59%로 거의 3배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국제기구의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특히 현재는 각종 기구 사무국내 여성비율을 1995년까지 35%까지 확보할 계획에 있으므로 유능한 여성들이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은 9명 정도가 국제유엔산하기구에 진출중인데 국제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동안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각자의 전문 직종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야 하고 유엔의 공식언어인 6개국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중 2가지를 구사할 수 있으면 한결 유리하다.

얼마전 정부가 국제화 다변화, 미래지향에 대외 정책으로 제시하였듯이 이제 여성들도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존중 사회에서의 노인 차별



손승영/연대강사
78년사회학과교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노인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노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자주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아주 미미하였으나 1993년 현재 5%를 넘어섰으며, 2020년 경에는 15% 이상이나 되어서 지금의 선진국 수준으로 노년층의 규모가 커진다는 사실이 노인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증폭시켜 왔다. 하지만 우리의 노령자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때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를 현실적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까지에는 더욱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우리는 유교적 문화전통이 강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효를 중심으로 한 미풍양속이 잘 지켜지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에서의 효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며, 그 도리를 어겼을때 우리의 규범상으로 가해지는 비난은 아직도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 우리의 좋은 전통들이 계속 잘 유지되어서 노인들이 정말 존중받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요인들이 노인들에게 사실상 차별적으로 작용되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또한 그러한 사실에 준하여 실제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산업화에 따른 노령자의 지위변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서도 흔히 언급 되듯이,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과거에 상당히 높이 평가받던 노인들의 지식이나 경험들이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습득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노인들은 배울 기회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산업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지위상실을 초래해 왔다고 한다. 그들의 경험은 कै케묵고 낡은 것으로 인식되어서 더 이상 존중받기 어려워져서 젊은이들의 지위는 상승한 반면에 노인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한 사회 내에서 더 이상 중요한 지위를 점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산업화에 따른 노인의 지위하락 경험은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들어 맞는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서구사회에서 만큼 급격한 지위하락을 노인들이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즉 산업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지위가 하락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속도에 있어서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문화적

“
가족에게만 의존하여서는 노령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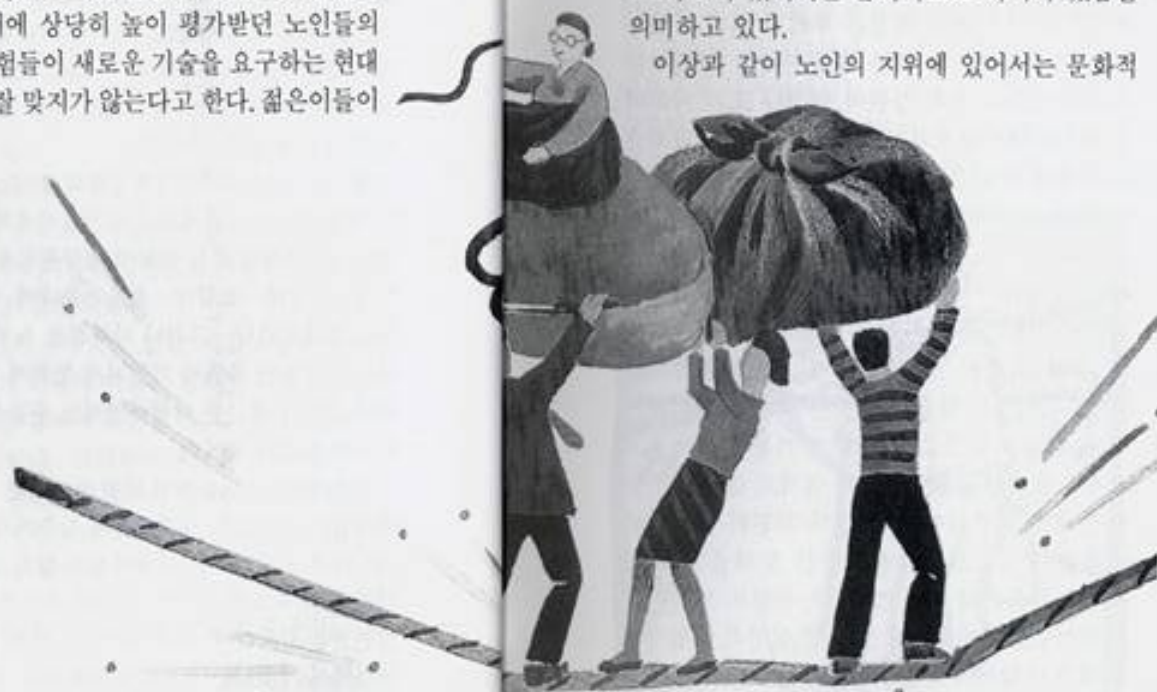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서구사회에서나 일본에서는 노인의 약한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펼쳐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맡긴 채 노인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지 못했으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노인들의 실제 사회적 지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 결과, 한국 노인들의 가족이나 친족 내에서의 지위는 서구사회에 비해 다소 높을지 몰라도 이 연령층의 공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위는 서구나 일본에 비하여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은 편이다.

2. 가족 변화에 따른 노인 부양문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자녀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인들만 따로 살고 있는 ‘노령자 단독가구’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거와 같이 가족에게만 의존하여서는 노령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자녀들이 직장 관계로 도회지로 이주함에 따라 상당수의 노령자들이 이미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여서 살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자녀와 따로 사는 동기에 있어서는 농촌지역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노령자들만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자녀와의 별거는 상당히 자발적인 경우가 많아서 노령자들 중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또 젊고 배우자가 있으면서 건강한 경우에는 단독가구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노인 단독가구의 노인들은 자녀와 동거시에 비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말상대가 되어줄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경우들이 많다. 노부모와 자녀가 같은 도시지역에 살 경우에는 자녀들이



“ 우리 사회를 과연 노인존중의 사회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자주 오가며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아, 동거가족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홀로 남아있는 노부모의 상당수는 나이가 많고 건강하지 못해서 사실상 도시지역의 단독가구에 비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관계로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

노인단독가구에서뿐만 아니라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첫째, 며느리가 직장을 갖고 있거나 돈벌이를 나가는 가정에서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더라도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며느리들의 경우에는 돈버는 일과 가정주부의 역할을 병행해야 하므로 노부모 부양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노부모의 건강이 나쁠 때는 부양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에서는 흔히 노망으로 불리는 치매현상을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심각한 경우에도 가정에서 그대로 모시고 있으므로 이때에는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특히 며느리의 고충은 매우 심각해 진다.

또한 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노인병원의 부재로 인하여, 실제로 제도적인 요청이 필요한 가정에서도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 노인들을 담당할 의료시설의 확충이 없이는 현재 이들을 모시고 있는 각 노인가정의 어려움을 줄이기가 힘들다. 변화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형태와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비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노인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노인 간호의 중요성은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노부모의 경우에도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자녀와 합치기를 희망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노부모의 바램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 내에서의 핵가족화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노인들이 비교적 건강한 시기에 국한되어서 적용되고 있을 뿐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비록 그들이 따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노부모의 의식 속에는 확대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관계가 기대되고 있는 점이 서구와는 다른 우리 사회의 특수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3. 우리 사회에서의 노령자 차별

한국에서는 여지껏 노인에 대한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주로 이해해 왔고, 그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 사상을 고취시킴으로써 각 가정에서 노부모를 잘 부양하여야 노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개별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인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가족자원을 백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가족 성원이 없거나 또는 가족이 있더라도 사정상 노부모 부양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노인 부양의 문제나 노령자 전반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나 가족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여 온 우리 사회의 모습이 과연 노인존중사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효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전통을 내세우고 가족의 중요성을 외침으로써 실제로 많은 노인들의 문제를 외면하여 왔고 정부 차원에서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해결방안 모색을 우리는 몹시도 게을리해 왔던 것 같다. 우리의 노인존중은 의식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실천적 차원에서는 매우 미약하여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노인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정책들을

“ 겉으로만 외치는 노인존중의 사상보다는 노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이 더 요구된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의 노령자의 권위가 눈에 띄게 달라진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을 위한 제도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우리 사회를 과연 노인존중의 사회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지니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존중의 문화적 전통은 비교적 강하게 지속적으로 남아있으나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결국 여러 차원에서 노인들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또한 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노령자에 대한 차별은 크게는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차별을 들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차별은 노인의 약한 경제적 지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른 나이에서의 강요된 정년퇴직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5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강요받는다. 이때는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는 시기여서 교육비가 아주 많이 필요하며, 또한 자녀들

이 결혼을 시작하는 나이여서 어느 때 보다도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년을 맞은 한국의 가장들은 대부분 고정수입 없이 저축한 돈이나 퇴직금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난 65세 이후에는 수중에는 별로 저축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또한 퇴직 후에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가 극히 적으며, 고용을 하더라도 노령자에게는 아주 낮은 액수의 임금이 지불되는 실정이라서 젊은이들에 비하여 노령자들이 현 한국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년층들이 당면한 경제적 고충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 직종과 계층에 걸쳐 확대 실시함으로써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인의 평균수명의 연장을 고려하여서 현재의 정년퇴직 연령을 높임으로써 노령자들이 보다 오래 자신의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로 문화적 차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대중문화 형태를 잘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영화, 연극, 술집, 노래방, 놀이동산 등 대다수의 문화시설이나 오락시설들이 젊은이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이 연령층들이 주 고객을 이룸으로써, 사실상 노인들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의 문화적 차별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공간들을 계획적으로 마련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대부분의 대중문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표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성에 치중하여 사적인 이윤추구만을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결과, 이 과정에서 상업성이 낮은 노인들을 위한 배려나 시설의 확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

노령자들의 사회내에서의 공적인 권익이 향상된다면 우리 또한 보다 원만한 세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같은 노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시설들을 증대시키거나 현재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정과 같은 기존의 장소에다가 노인들을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노인에 대한 경제적 및 문화적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노인소의 현상을 초래해 왔다. 젊음이 높게 평가되기 시작한 현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의 장소는 주로 집안이나 사회의 그늘지고 후미진 곳이 되어온 것이다. 앞으로 증가할 노인들의 숫자를 감안할 때, 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합함으로써 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세력을 확대해 나갈 때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수 있게끔 압력단체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담당자들도 노인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을 변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극적 수준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1993년 현재 노인을 위한 복지기금예산의 절반이 노인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복지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무료 주거시설의 제공이라든가, 집안일을 대신해 주거나 목욕 등을 도와줄 가정봉사원의 파견, 집으로의 무료 음식을 배달이나 무료 의료 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는 꿈도 못꾸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들어 점점 늘고 있는 노인층의 숫적 증가를 고려하여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미리 세움으로써, 앞으로 급증할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의 개발도 정책적으로 장려하여서 의료, 주거 및 식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노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싼 값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을 위한 요양원의 확장과 임종을 눈앞에 둔 노인들을 수용할 종합적인 호스피스 의료 체계 및 노인을 위한 노인병원의 건설 등 다방면에서의 실버산업의 발전이 요청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중심으로한 노인부양과 병행될 때, 가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노인정책으로 인하여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자들과 그 가족 성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길으로만 외치는 노인존중사상이 그 형식적인 강조만으로 인하여 실제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차별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요구들을 고려하여서 다방면으로 노인문제에 접근하고 그 해결방안들이 마련되어서 노인들을 위한 제반 시설들과 고용기회 및 여가시설들이 골고루 갖춰질 때, 사실상 우리는 노인존중의 사회에 산다고 뽐낼 수 있을 것이다. 노령자들의 사회 내에서의 공적인 권익이 향상된다면 우리 또한 보다 원만한 세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책들의 도입은 노인들의 사회적 자원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고, 노인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 소외현상도 점차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흔들리는 것은

정영자/부산여대교수, 64년국문학과졸

흐르는 것은
푸른 바람만이 아니고

흔들리는 것은
앞세만이 아니다

조록바람,
싱그럽게 흐르는 그리움,
오늘은
실실이 풀려나는 잔잔한 추억으로
되돌아 오고 있음이네

살고 사랑하는 일들에
머리카락 날리며
어느날
문득
너,
그리고 그리웠던 연세숲아

햇볕 눈부시게 내리고
우리,
오늘은
푸른하늘, 원구름으로
흐르고 있음이네

여기는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미래,
지금온
푸른 숲으로 흐르고 있음이네.

(1992. 5. 30 여동문의 날에 읽은 즉흥시)

자녀의 독립과 성숙한 부모역할



주은희/연대강사
78년교육학과졸

십여 년 전에 실시한 한국노인들에 대한 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일로 자녀와 손자탄생, 자녀결혼 등 자녀와 관련된 일을 반수가량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 키울 때'를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회상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윗세대의 삶이 얼마나 자녀존중적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의 자아개발'이니, '사회참여'란 말을 적잖게 듣고 있는 요즘에도 중년부부의 삶에서 자녀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결혼생활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교육에 소홀'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족이 서구의 부부중심 가족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부모-자녀관계가 부부관계보다 중시되어 온 특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자녀에게 효도받기 그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는 오늘의 부모세대는 '자녀의 효용가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자녀 시중들기'에 빠져들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일반의 젊은이들과 세대차이를 많이 느끼지만 가족 내의 자녀들과는 가능한 한 세대차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세대간의 거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가족적 동질성에 대한 기대와 후계자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자녀들은 개성화와 가치의 자율화를 그들 발달단계의 내기로 내세우며 세대간의 차이를 과장하거나 최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두 세대간에 의견충돌로 인간관계가 존립위기를 맞으면 노부모측이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발달심리학자들의 현상기술(記述)이다.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온 노부모가 투자를 적게해 온 자녀세대보다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양보하는 이런 현상을 윌러는 '최소 이해의 원칙'이라 칭하였다. 출산 후 줄곧 자녀시중들기에 열심이던 부모들이 노후에 일상생활의 협상과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작금의 한국 가족관계의 문제고리를 청소년기의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부터 풀어가보려 한다.

1. 청소년기 심리특성의 이해

청소년기라는 인생의 한 단계는 과거 농경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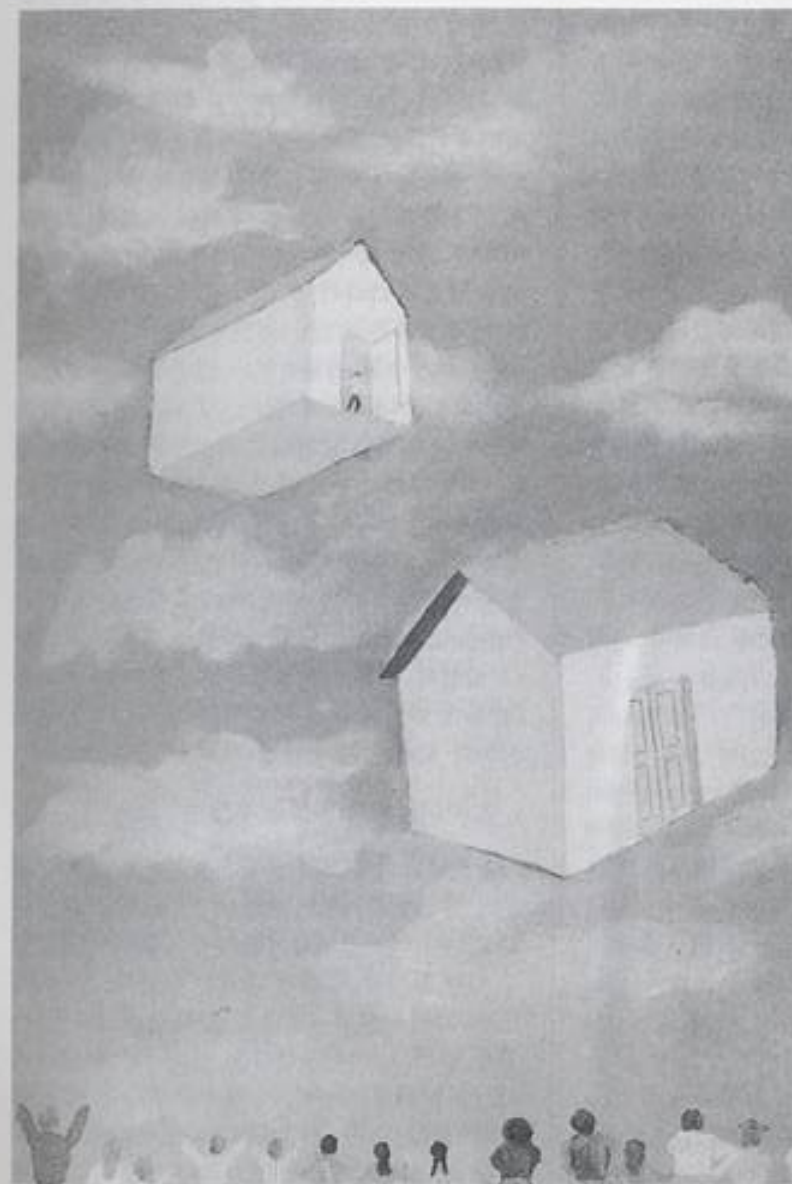
나 산업화 초기까지 별로 주목되지 않아 왔다. 여유있는 계층의 자녀만이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청소년의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자녀수의 감소와 핵가족화는 교육기간과 취업 준비기간의 연장을 가져오고 청소년기는 일생의 발달단계 중 중요한 한 시기로 받아들여졌다.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생리

적 변화로 시작되어 성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끝나는데, 요즘 세계적 성숙의 가속화 추세로 초경을 비롯한 사춘기적 변화가 앞당겨진 반면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전체 청소년기는 시기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청소년'하면 '반항'을 연상할 정도로 성인들은 청소년기의 행동양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조사에 근거한 자료들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인습적인 자세로 성인들의 생활에 동조하고 있고, 특히 중산층 출신 청소년들은 학교나 사회에서의 지위, 인기,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성공 등을 통하여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얻고자 노력한다. 청소년 초기에 신체적·생리적 발달로 성적 욕구를 경험하고 이러한 욕구의 감정은 불안감을 수반하거나 대인관계의 부끄러움을 동반하게 되지만 이런 경험은 오히려 정상적인 발달과 성숙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
지나친 관심, 허용, 방임,
무관심은 자율성을
저해한다.
”



청소년기의 전형적 행동특징인 외모에 신경쓰기, 왜거리짓기, 과시행동, 위험추구행동, 자의식의 고양 등을 설명하는데는 엘킨드가 사용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ce egocentrism)'이 적절한 개념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만 자기가 타인이 생각한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 타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청소년들 자신은 자기의 용모와 행동에 몰두하고 있지만 타인은 그 점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결과 '상상의 관중' 상념을 갖게 된다. 사춘기에 터무니없는 자기비난이나 자기찬양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아의식이 그 한 예이다. 자아중심성의 또 다른 결과는 '개인적 우화'이다. 청소년들은 실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 '나의 경험은 독특하며, 비록 부모라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정서 및 상황이 타인의 그것들과 유사성을 지님을 지각하지 못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잘 구별 못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지나치게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아에 대한 내적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매우 메혹적인 작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내적 경향성(introspectiveness)과 자기관리(self-monitoring) 경향성이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내적 경향성이란 자신에 대한 사고나 감정, 신체상태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내적 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은 일상적 생활, 사건에 얽린 의미성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차츰 커진다. 그들은 직업이나 전공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아지향적 활동을 선호한다.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인 자기관리 경향성이란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아에 대한 자기반영적 검토를 할 때 한편으로는 자아에 대한 청중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타인들'이나 또래집단에 대한 청중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리발달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진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고교시기에 절정을 이룬다는 점이다. 둘째,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점차로 낮아져야 할 내적 경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점이다. 셋째, 자기관리개념이 발달적 변인이라기 보다 시간 경과에 대해 일관된 개인차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분위기를 들 수 있다. 즉 대학입시라는 극단적인 압박감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감수성을 익히게 하는 사회적 경험을 부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이 일시적 지체 혹은 퇴행을 가져와 더 어린 시기의 현상들이 재현되고 자아중심성이나 내적 경향성 등이 아주 낮게 나타나야 할 대학생 시기까지 그 영향력 하에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갖는 특수한 상황으로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의 진입은 자기보호욕구를 증가시키고 청중에게 자신을 드러내길 꺼려하는 자아중심성을 함께 증가시켜 이전의 발달단계의 행동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또한 신입생들이 실제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대학에 기대하는 '신입생들의 신화(freshman myth)'도 대학생활의 사회적 적응이나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기에 대한 지각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신화의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2. 자아정체감 형성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제는 부모로부터의 분리 및 개별화과정인 자아정체감 형성이라고 한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 일관성 내지는 통일성인 동시에 또한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아정체감은 사회적관계 내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즉 탈중심화가 될 때 확립될 수 있다. 그간 물질적, 정신적 자원의 통제자로서 강력한 존재였던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66

청소년들 자신은 자신의 용모와
행동에 몰두하고 있지만 타인은 그점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77

형성된 정체감은 정체감의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체감 형성과 획득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와의 의존관계를 벗어나는 것, 즉 부모로부터 분리과정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자녀들의 심리적 독립은 네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기능적 독립은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없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제 더 이상 자녀는 '오늘 무슨 옷을 입을 까요?'라고 물으려 하지 않으며 가능한 행동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둘째, 태도적 독립은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구별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는 일이다. 예컨대 이들은 가족제도, 국가형태 등에 대해 부모와는 다른 견해를 추구하기도 한다. 셋째로 정서적 독립은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사랑받고자 하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넷째는 갈등적 독립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불만, 불신감, 분노, 책임감, 죄책감 등 갈등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때때로 청소년들이 부모를 비판하는데 온 정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본다. 청소년들이 부모와 독립된 행동과 가치관을 보이고 인정받거나 지지받는 것에서 비교적 자유로울지라도 갈등관계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모들이 여전히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부모로부터 갈등면에서 독립한 정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크게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어 부모와의 갈등완화는 청소년 후기의 적응 및 정체감형성에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3. 성숙한 부모의 역할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중심성, 자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거나 방

임, 과보호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청소년들의 자아중심성은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반면에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라 지각하는 경우에는 자아중심적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지지적 태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불신과 거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서 '상상 속의 관중의식'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적절감은 사회적 적응력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율성과의 관계 연구결과를 보면 자기의 성장을 격려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수록 청소년들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는 한편, 지나친 간섭, 허용, 방임, 무관심은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성숙한 민주적 부모는 그들의 정서적 욕구충족을 위해 청소년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규칙이나 기대수준에 대해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다. 이점은 규범적 인식에 의한 부모로서의 권력행사라는 거부를 낳지 않고 부모의 조언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더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한다. 또한 부모와 성장하는 자녀관계의 친밀도의 적정화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청소년 후기의 자녀들이 개별주의적 자율감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친밀하려 하는 욕구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감이 자율성 획득과정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죄책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때 성숙한 부모라면 청소년기의 독립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분화를 실행하면서 부모의 애정을 상실할까 우려하는 단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고 분화단계에 과잉반응하지 말 것이며, 부모 또한 부분적 수용을 통해 자녀의 독립이 견고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

탁아문제의 현주소



왕세경/전직기자
77년정외과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음식과 용변기와 함께
가둬져 있는 사이 형제가 불장난끝에 숨졌던
사건은 아직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주부들의 취업이 증가하는데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탁아소는 폭발하는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이를 때어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저소득층,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유로
직업을 원하는 중산층 등, 여성들에게 절실한
탁아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다.

탁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불과 3
~4년, 이보다 훨씬 앞서 70년대 초부터 빈민아동
탁아운동이 민간차원에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 탁아시설의 효시이다. 정부도 탁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0년에 영유아 보호법을
마련하는 등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맛벌이 가정의 0~5세 아동
100만명을 보육하기 위해서는 탁아소 3만3천개가
필요하나 93년 3월 말 현재 탁아소 수는 직장탁
아소 28곳, 가정놀이방 2천44곳을 포함, 4천8백41



“
인성형성에 바탕을 둔
질 높은 유아교육이
필요하다.
”

곳에 불과하며 보육 아동수 13만7천19명 정도로
전체 보육대상의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취업 주부설문 조사
시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가 69%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
의 가장 큰 장애가 육아임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대리양육자로 조부모 47.7%, 탁아시설 26.3%,
가정부나 파출부 6.8%, 이웃 6.3%, 친척 2.4%,
그리고 방치하는 경우도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늘고 있는 탁아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울의 한국 여성개발원 직장 탁아소,
어린이집, 지역사회 탁아연합(지탁연) 소속 아가
방, 놀이방 등 유형별로 몇 군데 탁아현장을 찾아
보았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북한산 자락에 자리잡은
한국 여성개발원내 직장 탁아소는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직장 탁아소이다.

마침 열 대여섯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림동
화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북한
산의 수려한 장관에 둘러싸인 이 곳은 바람직한
직장 탁아의 한 실험모델로 38평에 한개의 교실
검 유희실과 수면방이 마련되어(보사부기준 아동

1인당 1.3평) 이곳의 아이들은 선택받은 느낌이다.

88년 21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직원
복지차원의 직장 탁아소로, 교사 3명이 인근 인구
보건연구원의 자녀도 받고 있다.보육비 부담은
개발원 직원의 경우 월 수입기준에 따라 월 6만
5천원을 받고 교사인건비, 난방비, 급식비 등 여
성개발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경애 교사는“지금은탁아사업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라 열악한 탁아환경의 개선
에는 미처 눈도 못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적인 교육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다. 유아기의 교육이 인성의 80%를 결정하고,
그 이후의 교육은 지식의 습득에 치중되므로
인성형성에 바탕을 둔 질 높은 유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구청 탁아소

91년 9월 15일 문을 연 서울 퇴계로 4가와
을지로 4가 사이에 위치한 중구청 직장 탁아소는
처음으로 개설된 구청탁아소로서 전 구청장 김성
순 씨의 남다른 숨은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
구청건물과 조금 떨어진 별관 건물에 설치된
이 탁아소에는 현재 45명의 아동 중 영아가 무려

25명이나 수용되어 교사들의 손이 많이 가고 있다. 20명이 구청직원 자녀이고, 25명은 인근 주민 자녀이다. 그 중 17명은 부근 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로 정부의 50%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3개월~3세까지의 영아 3반, 유아 1반으로 나누어 돌보고있는데 영아 7명을 교사 한사람이 맡고 있다. 마침 낮잠을 잘 시간이라 여기저기 방바닥에 흩어져 모두 자는 모습이었고, 몇몇 교사들이 앉아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아이를 맡아 달라는 간절한 애원을 정원 초과로 거절해야 할 때가 정말 괴롭다."고 한정옥 원장은 말한다. 현재 영아는 월 10만5천원, 유아 7만1천원을 받는다.

공립 탁아소

통칭 '어린이집'으로 불리는 이 탁아소는 5공 시절의 새마을 유아원을 개편하여 지역자녀의 유아교육과 탁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인왕산 중턱에 자리잡아 자연환경이 좋은 '인왕 어린이집'(서울 종로구 무악동, 원장 김숙교)과 2백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무악 어린이집'(원장 성기자)은 시설도 좋고 여기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활기차 보였다. 주변의 산동네 주택들이지만, 인왕 어린이집은 대지 2백평, 건평 86평의 건물에 4반 66명의 아동이 있었고, 무악은 5반 1백9명이 다니고 있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교대로 특근을 두어 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들의 아이를 맡고 있다고 한다.

인왕의 경우 취업모는 30% 정도, 무악의 경우 90%로 회사, 학교, 파출부, 청소부로 일하는 주부들과 레이스짜기, 구슬짜기 등 여러가지 가내부업을 하는 주부들이 이용한다고 한다. 점심 외에 두차례의 간식을 주며, 이야기 나누기, 공작, 정리 정돈, 예절 등 여러가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우 충실한 편이다.

요즈음 아이들은 간식도 고급화되어 '초코파이' 정도는 시시하다고 하여 식단짜기에 어려움

이 있다고 한다. 되도록 고구마, 감자요리를 많이 활용하려는데 손이 많이 간다고 성기자 원장은 말한다. 마침 점심시간이 가까운 탓인지 구수한 고구마냄새가 식욕을 돋군다. 무악의 아이들은 특히 예절교육을 강조하였는지 밝게 "안녕하세요?" 하는 활기찬 인사가 인상적이다.

구청으로부터 교사 인건비 일부 지원과 생활보조대상자 및 가구당 월 소득 7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부족하여 동방 아동복지회와 주부클럽 등 후원단체가 각각 지원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궁핍한 가정에서 느끼지 못할 행복감을 주려고 교사들이 무척 노력한다"는 원장의 말대로, 이곳에 2년 내지 4년까지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는 12시간 머무는 이 곳이 그들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기업들이 탁아소를 설치할 경우 투자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손비처리해 주며, 탁아소에 대한 기부금도 손비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기업측은 이직을 감소, 홍보적인 차원, 세제 혜택 등의 효과를 보고 직장 탁아소를 신설하고 있다. 특히 삼성복지재단의 '홍익 어린이집', '천마 어린이집', '꿈나무 어린이집', '셋별 어린이집'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규모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 기업이 복지정책의 형식적인 홍보차원으로 집단화되는 곳이 많다. 가정적인 분위기, 엄마의 대리 충족면, 가정과 탁아소의 공간적



66 빈민지역의 비영리민간탁아소는 탁아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정압박이 가장 심하다.

77

차이로 인한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삼성복지재단이 건립하여 시에 기부한 공립탁아소인 '천마 어린이집'(서울 송파구 마천동)은 건평 2백62평 규모의 3층 건물이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이 곳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까지 어린이 1백50여명, 13명의 보육교사와 4명의 자원봉사자가 돌보고 있다. "영아가 50명, 유아가 1백명으로 약 80%는 근처 가내부업을 하는 취업여성의 자녀이고 20%는 유치원 교육을 위해 집에 있는 주부가 보내온 아이들"이라고 황영자 원장은 말한다. 현재의 보육료는 다른 공립탁아소와 마찬가지로 3세 미만의 영아는 9만5천원, 유아는 7만1천원을 받고 가구당 월 소득 70만원 미만의 가구는 동회에서 소득증명서를 떼어오면 정부지원으로 50% 감액해 주어 5만6천5백원을 낸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방법이 탁아분야에도 활용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영리 지역탁아소

탁아운동의 선구자인 빈민지역 탁아소들의 연합체인 지역탁아소연합(지탁연) 소속 오손도손 아기방(서울 행당동), 해송아기둥지(서울 창신동), 또래방(서울 무악동) 등 비영리 지역탁아소들은 대개 일반주택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돌보고 있다. 이들은 4만원에서 6만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어 보사부 고시 민간보육료시설 표준단가(3세 미만 월 14만8천4백70원, 3세 이상 월 10만2천80원)를 보아도 재정압박이 심하다.

아이들의 보육료는 식비와 간식비로 거의 다 들어가게 되고 교사인건비는 자원 봉사자와 교회 선교회나 개인 후원비, 또는 간간히 벌이는 바자회를 통한 모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저임금에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이곳 탁아모들의 봉사정신으로 탁아소는 운영된다. 주로 달동네에 위치한 이들 지탁연 소속 탁아소들은 일찌기

탁아를 통한 빈민운동을 벌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센터 구실을 하고 있다.

해송 아기둥지는 22명의 가정집에 18명의 지역 사회 아동을 돌보고 있다. 보육료는 5만6천원으로 인건비와 건물유지비는 단체후원과 개인후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사처우는 봉급 28만원에 보너스 연 1백50%를 받는다.

아이들은 처음엔 엄마로부터의 격리불안이 생기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언니, 오빠들과의 협동심을 배워 엄마손에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 이기심이 적다. 또한 결혼가정의 아이들은 자원 봉사자에게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오손도손 아기방은 16명의 산동네 가정집에서 왕십리의 일용노동자, 작은 공장 미성사 자녀들 16명을 돌보고 있다. 이곳은 자모회의를 갖고 아이들 교육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헌옷 바자회, 장터 등을 함께 열어 난방비 등의 지출을 충당하고 있다고 조용란 교사는 말한다.

지역 탁아연합의 최선희 사무국장은 보사부의 93년 보육사업 지침서에 따라 정부가 월 평균 가구소득이 70만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 보육비의 절반정도 지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의 경우 부부소득이 70만원 미만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한다. 또한 보육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소득을 증명하는 월급명세서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영세자영업과 파출부, 일일노동자들은 이런 소득증명서를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정월급이 없는 가정, 영세맞벌이 부부 보육비 지원기준을 월평균 소득 70만원에서 90만원대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소득조사를 하였을 때 43%가 61만~90만원이었고, 주거 형태는 월세 48%, 전세 47%로 월 소득의 상당분을 주거비에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혜대상 아동선정에 사회복지사에 의한 주거환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CBS 칼럼

김인철의 생활경제

金仁哲 著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글
1992년 4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CBS 전파를 통해 방영된 글을 추렸다.

국 판
반양장
570면
값 10,000원

(株) 養 榮 閣

협찬 : 안중만 동문(상경대 응용통계학과 1회 졸업, 박영사 · (주)양영각 대표)

연세 동문께서 전화로 요청하시면 지오 한 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일단 잡지를 구경하십시오.

지오는 철저한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신비한 자연계, 특색있는 지역 및
종족의 문화, 과학기술, 정치, 사회, 환경, 흥미로운 여행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촌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과 현장감 넘치는 글로 보여 줍니다. 어른들에게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고 아이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을 키워 주는 **지오**는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잡지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가족잡지 **지오**.

GEO

발행처 : (주)가톨릭문화사 서울 중구 정동 1-11 센타빌딩
구독문의 : TEL (02) 778-4100(대), FAX (02) 755-9860
연간구독료 : 66,000원 (12권)



한국판

한성
기업

튜니!

요걸 발라먹어?
무쳐먹어?
아니면, 비벼먹어?



히히! 바로 내가 튜니요리사!

고급 황칠차에 옥수수과 야채샐러드, 토마토케찹이 함께
있는 튜니 아시요?
그런데 튜니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아세요?
샐러드위에 콘샐러드튜니를 바르면 튜니샐러드워치—
영양많은 야채와 콘아재튜니를 무치면 튜니아재샐러드—
오무라이스에 콘샐러드튜니를 비벼면 튜니오무라이스—
자 이제 영양많은 튜니를 더욱 다양하게 즐기세요.



튜니 샌드위치

달콤달콤한 샌드위치에 계란후라이 대신 콘샐러드튜니를
넣어 드셔보세요. 샌드위치의 고소한 맛과 튜니의 달콤한
맛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튜니 야채샐러드

싱싱한 야채에 미요레소를 바르고 거기다 영양많은 튜니를
무치보세요. 맛있고 신선한 튜니야채샐러드가 됩니다.
튜니중에서도 콘아재튜니로 하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튜니 오무라이스

이제 튜니나 달걀 대신 콘샐러드튜니를 오무라이스에 넣고
바쳐보세요. 오무라이스의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영양가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콘참치, 콘샐러드 외에
튜니는 두가지 맛이 더 있어요!
황칠차튜니 — 김치찌개 등의 찌개용
콘참치튜니 — 어린이간식용

“조화있는 전체”



대한제당은 우리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35년간 힘써 왔습니다.

부분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이 약속됩니다.
35년간 건강하고 풍요로운 국민 식생활 발전을 위해 힘써온 대한제당—
우리생활 어디서든 쉽게 만날수 있는 대한제당은 물론 사료, 화학산업, 미래의 유전공학까지
남들이 선뜻하지 못하는 분야에 적극진출, 산업의 조화로운 전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당식품사업



●사료사업



●화학사업



●유전공학

 **대한제당**

NINO CERRUTI

“니노세루치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아내의 기분을 언제나
신혼으로 되돌려줄 줄 아는 남편




NINO CERRUTI.
이태리 신사복 예술의 걸작 —

주요점포
대한제당(주)
대표이사: 김오영

●서울: 총무팀 771-5073
강남점 542-7735
롯데백화점(본점) 773-7630

롯데백화점(잠실점) 424-1757
현대백화점(압구정점) 518-3227
현대백화점(무악재점) 556-0730

삼동백화점 594-7101
뉴코아점 599-7346
스프링센터 311-8883-5

●안양점 (0343) 45-7878
●부산: 광복점 (051) 245-7622
태화점 (051) 818-1767

●대구: 동아쇼핑 (053) 254-8079
동성로점 (053) 421-8677
●광주: 충장로점 (062) 228-6393-4

●인천: 신도점 (032) 762-9996
부천점 (032) 682-5800



24시간 밝은 미소 로손의 얼굴입니다.

로손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편안함을 드리겠습니다.

로손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밝은 미소—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로손의 얼굴입니다.

Lawsons®
태인유통주식회사

TEL : 서울 (02) 565-7700 (교 4) 대구 (053) 742-2631 ~ 3
대전 (042) 633-6700 ~ 2

한국도자기 창립 50주년기념 특별사은판매

창립 50주년
1943-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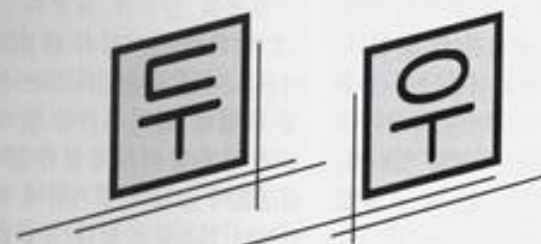
세계 정상의 품질을 인정받으며 해외 50여개국에
수출해 온 한국 도자기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국도자기를 사랑하여 주신
고객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계적인
디자인의 제품들을 특별사은판매합니다.
감사의 50년 - 한국도자기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HD) 한국도자기(주)



■ 사은판매지정점 • 안희센터 338-2631/5 • 한영센터 540-6700/1 • 내외센터 776-8300 • 종로센터 279-1800 • 극동센터 273-1801

종합건축사 사무소



주소: 강남구 청담동 80-2 대경빌딩 4층

전화: 549-2701~2

· 건축사 손태욱 (78년 건축공학과 졸업)





유방암의 조기진단

오세민/유방전문외과의사

유방에 대한 가치관과 표현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한다. 조물주의 뜻대로 2세를 기르는 중요한 곳으로 강조되기도 하고, 아름다움과 여성의 상징 또는 남성들의 탐욕이나 예술가들의 미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로부터 엄마의 젖은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따뜻한 체온으로 아기와 사랑을 나누는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미적인 면이 다소 강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사춘기의 소녀는 부풀어 오르는 자신의 유방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일회 일비하고, 결혼한 여성 중엔 젊은 유방의 모양을 보존하려는 욕망으로 수유를 포기하기도 한다. 유방이 작아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많은 비용을 들여 유방확대수술을 받는다고, 너무 커서 옷을 입어도 뎀시가 없다고 크기를 줄여달라는 여성도 많다. 그런가 하면 의학적 무지의 결과로 유방을 키우려고 유방속에 약물을 주입한 후 암에 대한 공포로 일생을 불안하게 보내는 여성도 있다.

19세기 인상파 화가 르느와르는 '장미밭의 가브리엘'이라는 작품에서 보일듯 말 듯한 풍만한 가슴을 그려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밀로의 비너스상은 험난한 역사를 반영하듯 한쪽 팔이 파괴되었음에도 전무후무한 예술성으로 이것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비너스상의 아름답고 앙증스러운 유방이 떨어져 나갔다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일 것이며, 과연 그 예술성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렇듯 아름답고 소중한 유방에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하여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특히 '유방암'은 유방을 절제하여 '여성상실'이라는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또한 생명을 앗아가므로 무서운 질병이라

하겠다.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서양여성의 병으로만 여기고 있던 유방암이 최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거나 들어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80년대에 전체 여성암의 9%로 여성암 3위를 차지하던 유방암이 90년에는 10%, 91년에는 11%를 차지함으로써 증가속도에 가속이 붙는 듯한 느낌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유방암은 최근 흔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유방암의 공포에 빠져본 여성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건강해 보이던 이웃 부인이 어느날 갑자기 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는다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눈시울을 적시며 수술실로 향하는 일은 이제 다만 사가 되었다. 지난 해에는 중년들의 우상이었던 유명 여배우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원인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그러나 많은 의학자들은 '서구화되어 가는 생활패턴(Westernized Living Style)'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0년대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파생된 한국인 식생활의 서구화, 특히 고 지방식과 고 칼로리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지방식은 실험동물에서 유방암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지방식을 많이하는 서양인들에 유방암이 많은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비만한 여성뿐만 아니라, 고 지방식을 하는 여성의 혈액에는 유방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호르몬의 농도가 높다는 것이다.

고 칼로리식도 큰 문제가 된

다. 부유한 나라에서 유방암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나라의 여성들은 영양상태가 좋으므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최근 경향과 같이 초경 나이가 빠르고 폐경 나이가 늦으며 아기 도 늦게 낳는 경향이 있다. 유방암에서 빠른 초경(12세 이전), 늦은 폐경(50세 이후), 첫 출산이 늦은 경우(30세 이후) 등은 잘 알려진 위험요인이다.

요즘 한국여성들의 사회관과 가치관의 서구화로 야기된 만혼, 독신성향, 아이를 적게 낳고 수유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유방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첨가하여 서구식 음식 문화에 익숙한 신세대들에게 유방암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예방법 및 증세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고 피부암의 원인은 햇빛 속의 자외선이니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등 몇몇 암에 대한 예방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방암의 예방방법은 무엇인가? 실망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좋은 답은 없다.

또한 유방암은 소리없이 찾아오며 증세를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므로 문제다. 가장 흔한 증세는 유방에 뭉우리 가 만져지는 것이며 부종, 통증, 유두함몰, 유두분비물, 습진 등이 관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증세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암조직은 주변조직에 파고드는 특성으로 초기에는 정상조직과 구분이 잘 안되어, 전문가가 진찰할 때 암의 크기가 1cm는 되어야 발견할 수 있고, 의학지식이 없거나 유방에 관심이 없는 여성은 2~3cm 크기는 되어야 만질 수 있다. 이론상 암이 1cm까지 크는데 3~6년이 소요된다고 하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조기진단

예방법도 없고 초기엔 증세도 없다. 따라서 현대의학은 암을 얼마나 빨리 진단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기진단시 유방의 모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유방 보존술'로 치료가 가능하여 '유방상실'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힘든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년 생존율도 조기환자가 80~90%인 반면 진행된 암은 30% 이하로 예후의 차이도 엄청나므로 조기진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진단은 첫째, 환자 자신에 의한 규칙적인 유방 자가검진과 둘째, 유방전문 외과의사에 의한 정기적인 진찰과 정밀검사로 가능하다.

자가검진

자가검진은 여성 자신의 유방을 한달에 한번씩 직접 진찰해보는



것으로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자기 유방의 생김새를 기억하고 생리변화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서 불필요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히 의사와 상의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게 해주므로 조기진단에 많은 도움을 준다.

전문의에 의한 정기검진 정밀 검사

전문의(유방전문 외과의사)에 의한 검사는 의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의학적 검사와, 유방특수촬영(맘모그램이라 부른다), 초음파검사, 세포검사, 조직검사, 상처를 내지 않는 컴퓨터 조직검사장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완벽한 진단이 이루어진다.

특히 맘모그램은 손으로도

만져지지 않는 미세한 문제를 발견해 낼 수 있어 유방암 조기진단에 핵심적인 정밀진단장비이다. 최근에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화된 각종 장비를 내장시켜 과거의 기계와 비교하여 정밀하면서도 방사선 조사량을 극소화시켜 방사선노출에 대한 염려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 검사로 5mm 이하의 종양도 찾아낼 수 있어서 의사의 손만으로 진찰하는 것보다 이론상 2년은 빨리 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암이 5mm 이하이면 다른 곳으로 퍼지기 이전의 상태이나, 1cm가 넘으면 암세포가 혈액을 통하여 돌아다니고 다른 기관에 파고들기 시작할 때라는 점에서 맘모그램에 의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

우리나라 여성 생활패턴의 서구화로 80년대 이후 유방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00년대에는 여성 2위의 암이 될 것이다.

조기진단을 위한 정기검진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 조기진단율이 80~90%인 반면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는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조기발견을 위하여 중세가 없는 여성이라도 20대에 들어서면 매달 자기검진을 하고, 30세가 되면 전문가에 의한 기본검진을, 35세 이후에는 매년, 40세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유방암은 다른암에 비하여 예후가 좋고 조기발견시 유방모양을 보존하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잇점이 있다. 조기발견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새로와서 치료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통일한국의 대표역할이 소망



박은하/84년 사학과졸

“
외교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84년도 연대 사학과 졸업, '85년도 외무고시 수석, 외무부 사무관 수습 후 2년 동안 미 Columbia 대학유학, 주인도대사관 2등 서기관 겸 영사 3년 근무, 현재 외무부

정책총괄과 사무관. 연세를 떠난 지난 10년 동안 외교관으로서 그가 쌓아온 경력이다.

여고시절 한때 화폭에 손을 댔던 그가 아직도 여성에게 근무조건이 불리한 직업외교관을 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가치기준과 직업적 소명의식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그는 사무관 수습시절, 역시 직업외교관인 김원수(현재 외무부 조약과장)씨와 결혼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외교관 부부가 되었다. 남편은 그가 사무관 수습 후 미국유학을 하도록 적극 권장할 만큼 그의 열렬한 후원자이다.

대학시절 이미 영어와 독어에 능통하였던 그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외교관의 자질 중 빼놓을 수 없는 Software인 만큼 그가 외교무대에서 더욱 당당해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한다. 학창시절부터 늘 공적인 일에 관심을 하고 싶었던 그는 실제로 외교관이 되고 나서 더욱더 자신의 선택에 찬사를 보낼 만큼 그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

외교관의 임무는 국가의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시행하는 일인 만큼 공인으로써 한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일선에서 일한다는 것이 직업인으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하는 모습

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의 외교무대는 더욱 넓어졌고 그 성격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다자간 협력체제에 접어든 오늘날,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닌 우수한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뜻있는 많은 백양인들의 도전을 권했다.

그는 “외교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외교계의 현실을 전망했다. 특히 세계 외교무대에 설 때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했다. 직업외교관으로서 그의 소망은 통일 한국의 대표로서 국제사회에서 신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사학과 동문들과 지속적인 유대를 맺고 있으며, 동문회가 좀더 활성화되어 학교발전에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명했다. 특히 훌륭한 인재의 배출은 훌륭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연세의 발전을 위해 학교는 물론 전 동문들이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다.



의료
법인

제 일 의 료 재 단 제 일 병 원

진료과목

내	외	소	산	성	정	신	안	피	비	마	방	임	해	치
부	형	형	정	부	노	취	사	상	부					
아	인	외	외	신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 주소: 서울 특별시 중구 묵정동 1-23
· 전화: 274 - 1231(대) 응급실 274 - 3090

재충전 끊이지 않는 베테랑 건축인



김인숙/69년 건축공학과졸

건물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튼튼한 건물이 과학적인 공법에서 비롯된다면 과학적인 공법은 건축가의 합리적인 생각과 조직적인 외모(?)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효성 컴퓨터 빌딩 11층 효성 드라이비트사에 근무하는 김인숙 선생은 완벽한 지성을 대변하고 있다.

'69년에 건축과를 졸업한 김인숙 선생은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한 이후 결혼으로 인한 5년 동안의 공백기를 제외하곤 지난 20여년 동안 줄곧 건축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는 '87년 미국 Dryvit System사와 합작으로 설립된 효성 드라이비트사에서 기술영업부

장으로 수주를 전담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다소 낯선 드라이비트란 외단열 System(공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효성 드라이비트에서는 그 재료의 생산은 물론 설계, 시공까지 하고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열교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벽 및 이질재료와의 접합면 등 단열 취약부분을 완전 차단하여 열, 내기투과를 극소화함으로써 열효율을 높여 연간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래서 호텔, 병원, 콘도, 아파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적합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호텔과 콘도들이 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 공법은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어져야 한다고 김선배는 강조한다.

우리 생활에 항상 변화가 있듯이 건축공법도 시대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마련이다. 일을 하면서도 늘 배움에 대한 욕구가 끊이지 않는 까닭에 '81년에는 부군과 함께 1년 동안 미국에서 수학을 하였고 '82년 가을 학기부터는 모교 산업

대학원에서 사회건축에 대한 안목을 좀더 넓혔다고 한다.

직업인으로 학교를 방문할 때는 늘 산학협동 차원에서 학교와 좀더 실질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지난번 모교의 100주년기념관이나 동문회관건립 발주 때에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 설치를 권장하였지만 끝내 무산되어 버린 것을 못내 아쉬워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건축분야에서 일을 해오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특별히 여성으로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여성으로서 '건축인'이란 직업이 매력적인 일인 만큼 공학적인 두뇌와 디자인적 감각의 소유자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저말고 뛰어들어 볼 것을 후배 건축학도들에게 권하였다.

여성이 숫적으로 열세인 건축계에서 여성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협회가 결성되어 있다.

현재 2년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세계 여성건축가 협회는 여성건축가들의 중요한 정보교환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김선배는 올 가을의 South Africa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부회장으로 있는 한국여성건축가 협회는 한달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협회에 후배 건축도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92년에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모교 건축과 여학생 동문회도 연말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

8인 중창단 『메아리』 창단



신갑순/59년 음대졸

함께 여긴다.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 인정받기 마련이므로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는다.

바쁜 가운데서도 80년 Harvard의 New England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한 후, 82년부터 모교 음대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다. 현재 도서출판 『삶과 꿈』의 발행인이기도 한 신선배는 이번에는 8인으로 구성된 『삶과 꿈』의 중창단 『메아리』를 창단했다.

아름다운 음악은 반드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듯이 아름다운 화음의 메아리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조화를 조금이라도 정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음악가로서 큰 보람이라고 부연한다.

흔히들 음악가를 일종의 기능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훌륭한 음악은 훌륭한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음악가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모교 음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당국이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건립 중인 동문회관이 완공되면 상설 String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학교행사는 물론 각 단과

대학의 행사 때에 연주활동을 하게 된다면 음대의 발전은 물론 학내 다른 대학과의 유대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동문회 일을 해오면서 신선배가 바라는 것은 많은 후배동문들의 좀더 적극적인 동문회 참여이다.

특히 70년대 이후 대학정원의 증가로 전체 동문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동문회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희박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개체로서는 더 할 나위없이 유능한 동문들이 정작 전체의 힘으로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존재조차 회미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여동문의 경우는 그들이 처한 개인적 환경의 제약을 받아 더욱더 사회적 결집력이 약해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동문들 모두가 항상 가슴 한구석에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문들의 잠재된 힘과 열망을 결집하여 동문회가 좀더 활성화 된다면 모교의 발전은 틀림없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법조계

소외계층 위해 일하고파



김정선/84년 법학과 졸

터무니없는 변호사 수입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즈음 도곡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근무하는 김정선동문을 만났다. '84년 법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에 제26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87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여러 길의 선택적 상황에서 이 길을 택하게 된 것은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신념에서였다고 한다.

1987년 법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창설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현재 서울 도곡동 본부 이외에 5개의 직할출장소가 있고,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 11개의 지부와 함께 각 지청 단위의 33개 출장소가 있다.

법률구조 대상자는 농민과 어민을 비롯하여 월 7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국가보훈대상자, 영세상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물품·용역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등 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나, 현재 주로 취급하고 있는 사건은 산재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과 임금·퇴직금사건 및 가사사건이라고 한다.

법률구조는 일단 법률상담에서 시작한다. 상담결과에 따라 당사자간의 화해조정이나 변호사에 의한 대리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 승소율은 98%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는 개인간의 민사문제에 한하여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여건을 고려하여 형사·행정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그 구조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법률구조에 대한 홍보가 일반인에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보호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국민의 생활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사례를 모아 「법률상담사례」를 발간하고 국제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그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지만 구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발전된 측면도 있다.”고 김정선 씨는 힘주어 말한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보다 법률구조제도가 발전된 미국의 제도에 대해 좀더 연구하여 구조제도에 대한 체계를 세워보고 싶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법률구조업무를 통해 우리 법조계의 현실을 경험해 본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판례에 학문적 이론이 좀더 뒷받침 된다면 판례자체의 발전은 물론 이론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법조인 임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처럼 변호사 업무를 한 후 판·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한단계 높은 법적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타대학에 비해 연세 여학생들의 법조계 진출이 부진한데, 앞으로 실력있는 후배들이 많이 진출하여 연세인의 지혜를 이 사회 구축구석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앞으로 상황이 허락한다면 동문회 이사로서 학교발전엔 뜻깊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계

자기 개성·색깔을 가진 직업



최은애/77년 사회학과 졸

준에 동문을 찾았다.

-언론계로 진출하게 된 동기는?

-그나마 여자에게도 전문성이 보장되고, 남녀차별이 덜한 직장으로 언론계를 희망했다. 77년 당시 중앙 매스컴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 여직자를 공채할 때 입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회부를 오래 돌면서 특히 환경, 과학기술, 보사, 교육 등의 분야를 다루었다. 현재는 경제 특집부에서 생활경제를 비롯하여 한국 경제를 본류 깊숙히 파헤치고 있다.

-언론계에 진출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들려 주고 싶은 얘기는?

-방송여직자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방송여직자는 기자적인 자질, PD적인 감각, 여기에 덧붙여 방송 발음과 칼리 전달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회소가치로서 여기자가 있다는 양념적 존재를 뛰어 넘어서 자기 개성, 색깔, 방송 특유의 Personality를 갖춘 Specialist, 즉 그 분야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만이 거대한 조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동문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은?

-사회에 나가보니 연대출신들, 주로 남자 동문이긴 하지만, 특히 홍보계통과 대기업의 중간관리자들이 많아 제 기획작품에 큰 도움을 받았다. 미래의 사회는 더욱 전문화된 사회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분야, 매우 힘든 분야 등에서 자기만의 독보적인 분야를 도전, 개척하는 자의 시대가 될 것 같다.

여동문회는 각각 분자로 흩어져 있는 개체를 끌어 모아 연결시켜 주고, 정보를 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아, 여동문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세력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 주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요즈음 KBS TV에 중진으로 활동하며 교육, 생활경제분야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최

세민 외과 의원

유방암 검진 클리닉

원장/ 전문의
오 세 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34
TEL: (02) 578-0051-2
FAX: (02) 578-0053

서울백제병원

신경정신과장

의학박사
양 창 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69
전화: 교한 793-0946~7
793-0912

인터뷰

자존심과 책임감이 성공의 비결



구안숙/77년 영문과출

“
어느 분야에서든
본질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부실대출로 사피하는 기사가 연일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때에, 합리적 경영으로 조용히 한국의 소비자 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티은행의 강남지점 지점장인 구안숙 동문을 만났다. 현재 한국에 12군데 지점을 가지고 있는 시티은행은 국내외의 어느 은행보다 소비

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는 마케팅전략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시티은행의 아홉번째 지점인 강남지점의 구안숙 지점장도 은행과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담회를 여는 등 'Culture Marketing'으로 불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시티은행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Marketing 상품은 '시티뱅크'이다. 이는 대소비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개발된 것으로써 한 구좌를 통해서 용도가 다른 여러 구좌를 이용할 수 있고 전화통화만으로도 소비자의 의사전달과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그 구좌로 Personal check와 Card발급이 가능하며 여러 종류의 대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대출시에는 종전에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시에 관행처럼 여겨져오던 적기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 금융의 큰 시사가 되고 있다.

'77년 영문과를 졸업한 구안숙 동문은 Bank of America에 입사하여 행원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직업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고 느껴 '81년 미국의 뉴욕대에서 경영학 공

부를 시작했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85년부터 시티은행의 Marketing부서에서 총일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91년 시티은행 강남지점 개점과 함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1년 반 만에 은행을 케도에 올려놓을 만큼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한 구안숙 동문은 그 성공비결을 이렇게 얘기한다.

“일단 목표를 세우고 항상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잃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본질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전문가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다면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라고 전문가로 성공하려는 후배동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다.

빠빠한 일정 가운데서도 외국계 은행에 다니는 동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맺고 있으며, 수시로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가끔씩 학교에 들려 백양로를 드라이브 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옛날 그 인물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앞으로 동문회가 좀더 활성화되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소식을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견 전문의 활약

주정진/차병원
김경희/세연내과의원

“
전문의는 보람과
성취감은 크지만 자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재충전과 온 집안의
헌신적인 지원 없이는
힘든 직업입니다.”

구정진 동문은 차병원에서 불임클리닉의 중견의사로서 일하고 있다. 차병원은 주로 연세대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김경희 동문은 '83년 전문의가 되어 8년간 영동세브란스 내과교수로 재직하다가 개업한지 2년이 된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보다 학문적인 성취감은 적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한다. 종합병원에서는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인 종합진단이 불가능하다. 요즘은 환자를 대하면서 여성 구타, 스트레스 등의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실제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인생공부도 많이 하고 있다. 요즘 주부들은 소

화불양, 인성질환, 부부·고부 간의 갈등, 자녀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또한 주부들이 자신의 일이 없을 경우 자신감의 결여, 소외감 등 정신적인 갈등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김동문은 얘기한다.

한편 두 사람은 동문회에 대해서 “의과대학은 히포크라테스의 보편적인 선서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의 편견이 있어 여성이 학교에 나올 기회가 적다. 우리 여의사라는 전문직은 보람과 성취감은 크지만 자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재충전과 온 집안의 헌신적인 지원 없이는 힘든 직업이다. 그런데 연세대는 개업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선후배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감이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응집력 없이 개인적이어서 같이 참여하는 활동이 부족하다. 여자 동문회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연내과의원
SEYON MEDICAL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김 경 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0-11 (세명빌딩 2층)
전 화 : 567-4305

교정학박사
백 일 수 치과
80년 치의예과 졸

TEL : (0343)46-2778
49-8770

환상의 명콤비

김혜경/60년 경영학과졸
김희영/64년 경제학과졸

“
자신의 강점을 살려
자영업을 시작
”

김혜경 동문과 김희영 동문은 남
자동문들 사이에 '환상의 명콤비'

라고 불려진다. 91년 인터콘티넨탈
호텔 지하에 '미라보'라는 보석상
을 오픈했다. 두 동문들은 그 동안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며 어느정도
아이들을 다 키워놓자, 타고난 소
질과 자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
을 늘 잠재의식 속에서 찾아왔다고
한다.

그 동안 적십자 자문위원, 자선
전시회 등에 참여하면서 익힌 안목
과 원만한 대인관계 등 자신의 강
점을 살려 자영업을 시작하였다.
본인들의 인성이 좋아 정직하고,
진실되게 고객을 맞고, 매사에 긍
정적인 태도로 부지런히 일하며 아
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하고 직접
디자인도 한다. 외국물건의
Setting은 모방하지 않는 등 자금
심도 또한 높다. 상경대 남자동
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움으로 양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 보답으로 상경대 골프대회에
매년 골프패를 증정해오고 있다.

설을 구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는 제34회 나이팅게일기장 수상자
로 홍정혜 동문(51년 세브란스 간
호학교 졸, 적십자 간호전문대 교
수)과 최명희 동문(48년 세브란스
간호학교 졸, 서울 을지병원 간호
부장)을 결정하였다. 한편 두 동문
이 받는 나이팅게일기장은 오는
10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88주년
기념식장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일리노이 주립대학
간호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인 김
미자 동문이 헐리리 클린턴이 이
끄는 미의료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의 위원 47명 중 한명으로 발탁되
었다. 김미자 동문은 지난해 시카
고 '트리뷴'지에 여성지도자 50인
중 한명으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미주사회에서 역량을 크게 발휘
해 왔다.

기술혁신과 전문화에 앞장

홍정혜, 최명희동문
제34회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보다 효
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기
술적인 혁신과 간호전문화에 앞
장서는 간호계 동문들은 11대 국
회의원을 역임한 김모임 간호대학
장(59년 간호학과졸)을 주축으로
정진하고 있다.

특히 간호동문들의 결혼과 육아
로 인한 전문직 중도 하차를 막기
위해, 여학생처와 함께 아동 발달단
계의 의료전문 상담을 갖춘 탁아시



연세대학교 93년도 봄학기 여성자원개발프로그램 수료식기념 1993. 6. 24

여성자원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연세대학교가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의 여성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1
회 여성자원개발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격려 속에서 알차게 진행되었
다. 다시 연세 캠퍼스시절로 돌아간 감회의 동문들, 잊었던 자기발견과 개발을 탐
색하는 계기를 제공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학생처장, 담당강사, 학생들의
좌담을 엮어 보았다. (편집자주)

●참석자
강 사 : 문은희 · 추애주 · 손승영 · 주은희
학 생 : 김 영 · 이순희 · 배경식 · 이연희
양은선 · 추선희 · 강세희
문 선 여학생처장

문 선: 우리 여동문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경제
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각자 처해있는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표현하고자 갈구하고 있다. 그 힘이

여기서 결집이 되면 새로운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동안 연세대학교가 남녀공학을 하면서도 여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없었다. 예를 들면 남성들에게는 졸업 후에도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최고경영자 교실 등). 이러한 것을 우리 여성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분들에게 최고의 배려와 관심을 둘 것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특강식으로 꾸민다. 또한 각 조마다 지도 담임교수를 두어서 각각 강의에 따르는 각자의 의견과 건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를 중심으로 한 조원간의 친목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시각과 삶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김영: 그 동안 학교를 떠나 한 주부로서 살아오다가 다시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감회가 가슴이 너무 벅찼다. 지역별로 조를 짜서 원탁 테이블에 앉으니 그 동안 누구의 아내로, 어머니로만 바빠 사느라 잊었던 나를 일깨워주고 인정해 주는 기분이었다. 또한 추애주담임선생님의 스스럼없는 이끌어주심과 강사 선생님, 티타임 등 분위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 우리 1조 10명은 끝나고 뒤풀이를 하였다. 우리의 새로운 관계맺음에 다들 호응이 잘 맞아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의 통나무 집이 있는 태촌으로 나들이도 갔었다.

하지만 그 동안 신문, 책, TV 외에는 접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강의가 거리감이 있었다. 그리고 주제별 한 시간 강의는 너무 짧아 미처 소화해 내지

못하는 감이 있다. 충분한 토의와 질의 응답이 필요하다.

우리가 40대 중반인데 그냥 나이를 먹은 것은 아니다. 우리 주부들만의 세계가 있다. 우리의 공간을 채울 따뜻한 것, 우리를 인정해 주는, 우리의 세계와 닿는 강의를 받고 싶다. 강의가 무르익어 가면서 지금도 늦지 않고 색깔있는 여자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 설렌다.

이순희: 여기에는 멀리 수원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다. 사실 너무 아까운 시간과 돈을 들여온다. 종종 강사분들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 강의는 우리를 감명시켜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과는 다르며, 우리에게 절실한 것, 공통의 관심사를 주시길 원한다.

배경식: 저는 연세대는 물론, 대학 문턱을 밟아 보지 못했지만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달려왔다. 저는 충청도 산골에서 자라 사범학교를 나와 20여년간 교편을 잡았다. 저는 이 교육이 또 하나의 탈바꿈, 즉 개인의 탈바꿈, 가정의 탈바꿈, 나아가 한국 여성의 정신적인 탈바꿈을 가져 오길 기원한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성 개방의 자유주의 풍조로 미혼모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가정주부 사이에는 늦둥이가 유행이라는 데 이것은 이기주의의 극단이며, 국민적 수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여성들이 정신개혁과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연희: 여성 자원개발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커리큘럼을 보니까 강사진이 아주 좋았지만, 여성잡지와 같은 냄새가 난다. 그 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아와서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등록했다. 강사분들은 쉽게 영어가 나오는데 저에게는 익숙치 않다. 앞으로 실타래 풀듯

“
우리가 40대 중반인데 그냥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부들만의 세계가 있다.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세계에
와 닿는 강의를 받고 싶다
”

이 하나씩 풀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금선: 대학에 3형제를 들여보내고 나니 시간이 남았는데, 우연찮게 신문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때 카달로그의 내용이 좋았다. 연세대를 들어오면서 철쭉꽃을 보며 지나온 과거 생각이 자꾸났다. 저들은 가정생활에 무언가 필요로움을 붙여넣고 싶었다. 우리는 아카데미하고 논리적인 학문보다 몰랐던 것, 호기심이 많은 여성의 절실한 문제를 채워주길 바란다.

양은선: 솔뚜정 운전엔 무사고 1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역시 누구 엄마, 누구 부인으로 있다가 처음 내디딘 사회가 교회 집사, 요즈음 교육부장이라는 직분을 맡았다. 하지만 가정의 울타리에만 머물던 내가 과연 남들 앞에서 교육시킬 자격이 있는지 두려움과 함께 자기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부동산 투기, 부정입학 등 부정을 저지르는 여자로 인식되며, 나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피할 수 있는가를 반문케 된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화장실에서의 문화 차이, 어디나 줄을 서고 사소한 것에도 어딘가나 제도화되어 있는 것에 감명받았다. 우리 주부들이 어머니 교육을 철저히 받아 우리가 가정과 사회의 중간 역할로서 준법정신, 환경보존, 의식차원의 개혁, 사회적인 운동과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선희: 여기 나온 동기는 결혼과 함께 묻혀 버린 내가 누구와 다를 수 있느냐? 내 능력이 무엇이며, 계속해서 발굴해 낼 나의 자원을 어떻게 건드려 줄 수 있느냐를 이곳에서 찾고 싶어서이다.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훌륭한 강사라고 생각지 않는다.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넣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강세희: 주위 사람들이 몹시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과연 3개월 후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가 문제다. 계층이 다양하고 관심사가 서로 다른 만큼 주부대상 프로그램이 대단히 힘들 것이다.

윤선: 저는 각자의 기대가 다양함을 알았다. 앞으로 같은 관심사의 그룹이 자생적으로 생기도록 유도하겠다. 여성자원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 여성자원개발 센터를 세워 사회교육, 평생교육을 하며,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강사도 될 수 있고, 탁아교육, 상담교육, 컴퓨터 소규모 경영, 실버산업 등 여성들만의 감성과 지혜를 살려 할 수 있는 일을 계획 중이다.

주은희: 외부 단체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많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에서도 도와 줄 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가정과 사회를 접목시켜주는 중간집단의 형성은 복지와 민주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절실하다.

문은희: 선생님 위에 선생님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강의는 배우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좋은 강의가 될 수 없으며, 강의 내용이 익숙한 것보다는 생소함이 훨씬 더 자극적일 수 있다. 우리 여성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잡담이나 수다로 그치지 않는 토론과 대화의 사회적 기술을 익혀야 한다. 또한 우리 여성이 사회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손승영: 여러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은 학생들과는 달리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 원론적인 강의에는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백화점식 나열의 강의는 전달하고자 하는 양이 많아 소화하기 힘들다는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좋은 강의가 불가능하다. 여성자원 개발프로그램

은 관계형성의 장이다. 여러분은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자기탐색의 시간을 거쳐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계를 찾기 바란다.

추애주: 자원개발 프로그램은 고정된 것으로서 어떤 틀 속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개방된 프로그램으로서, 항상 학생들의 욕구와 바람을 수용해 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며 과정이다. 그 이유는 각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희망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것을 수용해서 잠재력을 발견하며, 어떠한 방향에서 성취를 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중시여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자원개발 프로그램을 더욱더 바람직한 과정으로 만들어 가는데 참고하고, 많은 연구와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정리: 왕세경 동문)



아기는 정성
깨끗한 사회

“쓰레기를 줄입시다”



쓰레기를 줄여야 환경이 삽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환경이 삽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환경보호.
우리 모두의 절의가 필요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건강한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연속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합시다.
쓰레기를 줄입시다.

朝鮮日報社

엄마·아빠의 학교

얼마 전 가족 나들이길에 연세대 부근을 지나가던 중 유아원생인 딸아이가 '아빠 엄마의 학교'라며 창밖으로 연대 캠퍼스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문득 마음속으로 '아침 우리 부부가 같은 대학을 나왔지'하는 작은 감동이 일었으며 잊고지냈던 대학시절의 일들이 머리를 스쳤다.

우리는 같은 대학출신이라는 해도 사회에서 만나 결혼한 사이인 탓에 우리들과 연관된 대학시절의 추억거리는 없는 쌍이다. 그랜지 딸아이의 말 한마디로부터 비롯된 나의 추억은 대부분 남편은 등장하지 않는 나만의 에피소드들이었다.

추억 속의 대학시절에는 같은 과 동기나 선배, 또는 음악감상클럽 '하모니'의 얼굴들, 연고전 때의 일들, 그리고 백양로에서 스쳤던 많은 얼굴만 비칠 뿐 남편이 포함되는 건 아니었다.

그랜지 결혼 후 지금까지 학교와 관련된 화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각자 그때 그 시절 또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옛시절을 그리워하는지, 그건 모르겠다).

75년 입학생인 나와 73년 입학생으로 1학년 마치고 3년간 입대해 80년에 졸업한 남편과는 캠퍼스에서 마주칠 기회는 없었고, 우리는 졸업 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됐고 결혼에 이르렀다.

아마도 같은 신문사(사내결혼 후 내가 부서를 옮기기 전까지 우리는 조선일보 편집국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요, 선배배사이었다)에 근무하며 서로를 가깝게 느끼게 된 때는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동질감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내결혼이라 해도 남들처럼 오랜 연애 끝에



신세미/스포츠조선문화연예부 79년 신방과출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 서른이 넘은 노총각 노처녀가 되어 주위에서 '뒤늦게' 짝을 찾게 된 건, 같은 학교출신이라는 사실이 어떤 공감대로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사정모르는 동료들 중에는 우리가 이미 대학시절부터 서로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고 미워 짐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같은 학교 출신이다보니 아무래도 타고 출신보다 한번이라도 만날 기회가 더 있었을 테고, 서로의 친구가 결혼을 한다든지 공통으로 아는 얼굴들이 겹쳐지는 예가 적지 않았으며, 밖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자주 이야기를 전해들은 가운데 친숙해진 걸까, 우리는 각기 7년여 그지 선배배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정도면...'하고 부부의 연을 맺기에 이르렀으니...

직장에서 만난 사이라도 연애기간이 좀 길었더라면 졸업했다해도 틈나는 대로 대학 캠퍼스나 신촌 등지에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수년간 신문사의 선배배였다가 남녀관계(?)로 변한 건 불과 10개월여 남짓이었고, 게다가 그때만해도 사내결혼 후 여자쪽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우리는 드러내놓고 마음 편한 데이트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남들처럼 캠퍼스를 데이트장소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언젠가 휴일에 딸을 데리고 연대 캠퍼스를 찾아와야겠다. 백양로를 오르며 교정을 잘 뛰어다녀 "백양로 무너지겠다(지금은 더하지만 그때도 체력이 건강했다)."고 동기들의 놀림을 들곤했던 엄마의 대학시절 이야기도 해 주어야지.

내 사랑의 고향, 백양로

벌써 20년 전의 일이지만 백양로는 나의 인생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의 고향이다. 팔남매 중 언니, 오빠, 나,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모두 다섯 형제가 백양로를 오가며 청년기를 보냈다. 이렇게 한 집안에 5형제가 연세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집도 드물 것 같다. 더구나 나는 남편까지 연대동문이니 이만하면 내가 연세와 끈질긴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듯싶다.

돌이켜보면 나는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대학 4년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다. 특별히 전공에 애착을 가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삼선개헌 반대데모 등으로 수업일수보다도 휴강일수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런 대학생활이었지만 백양로에 얹힌 기억을 떠올릴 때면 내 젊은

이미매/가수 73년 주생활학과졸

날에 진한 향수를 갖게 된다.

그 당시 나는 수유리에 살았다. 집에서 신촌로타리까지 만원버스에 1시간 가량 실려오면 완전히 기진맥진했었다. 우선 학교 앞 다방에 들러 모닝커피를 한잔하고 기운을 차려 교실까지 걸어 올라 가노라면 백양로를 오가는 많은 얼굴들의 눈인사가 무척 정겨웠다. 그 젊은 날에 남편은 백양로 저편에서 걸어왔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웅다웅거리면서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일학년 늦가을쯤이었다. 특별한 만남은 없었지만 가끔씩 백양로를 스쳐지나가며 나눈 눈인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준 전부였다. 그러다가 3학년쯤이었을까? 남편



은 오랫동안 망설이며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연애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나는 무척 당황하고 겸연쩍어 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좋은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 2년 후 우린 결혼했다. 누구나 겪는 감정의 갈등을 우리도 같이 겪으면서 보낸 2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역시 내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었다. 내가 우리의 만남에 회의를 보일라치면 그는 훌쩍 어디론가 떠나 편지 한장을 보내오곤 했다. 그런 사건(?)은 나의 연애 감정을 더욱 자극하였고, 몇번의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끝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결혼 후에도 두차례 별거아닌 별거가 있었지만 그것은 서로의 애정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 동안 남편은 자만과 오기로 벌인 사업에 번번히 실패를 거듭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본래의 그 낙천적인 성격덕분으로 위기를 건뎌내었다. 그렇지만 나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연할 수 있는 남편이 때로는 답고 무능해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씩은 20년 전에 그랬듯이 전혀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했

다. 사실 방송국의 MC들이 나를 '분위기 있는 가수'라고 소개할 때마다 내 마음의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분위기의 뉘앙스는 무드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나의 일상생활은 남편의 거듭되는 사업실패로 무드를 느낄만한 여유가 없었다.

우리부부는 올해로 결혼 20주년을 맞는다. 돌이켜보면 남편은 20년 전의 열정 그대로 나를 지켜왔지만, 나는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 같다. '받는 사랑'에만 길들여져 있었던 내 자신의 변화 없이는 그 동안 느껴온 공허감을 채울 수 없으리란 생각이 이즈음 비로소 든다. 가끔씩 참석하게 되는 연세동문모임의 무대는 20년 전의 백양로에서 부딪혔던 그 신선했던 눈빛을 생생히 되새기게 해준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좌절과 실패가 비단 우리 부부에게만 있는 시련이겠는가? 숨가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끈끈히 묶어준 끈은 결국 백양로에서 짙은 우리의 오랜 애정이란 생각이 든다.

이제 가끔씩은 찾아가고 싶다.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준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던 내 젊은 날의 그 백양로를 말이다.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차병원 CHA GENERAL HOSPITAL

이 사 장 차 경 심
원 이 장 차 유 복
부 원 장 김 열
외 과 부 장 이 근
외국인크리닉 진료소장 계 정 노
용

진료과목 치 마 해 임 방 비 내 성 외 소 산
과 과 부 상 사 노 형 의 아 부
과 과 병 병 선 기 과 외 과 과 인
과 과 리 리 선 기 과 과 과 과 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50-9호(차병원)
대표전화 : 558 - 2111, 557-2611 FAX : 558-1119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 1동 606-5호 (여성의학 연구소)
대표전화 : 565 - 2611 FAX : 555 - 9007
부속 김진센터 스포츠클inic 의원 명예원장 김 기 호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4-14호
대표전화 : 563- 2611, FAX : 563-2115

여동문회에 바라는 재학생의 변

임성진/총여학생회장 문헌정보학과4년

5월입니다.

젊고 건강한 연세인의 숨쉬는 듯한 생동감이 더한층 돋보이는 계절이 바로 이 5월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5월은 바로 우리 연세동문, 연세가족의 달이기도 하지요. 108주년 부악대동제를 맞이하는 연세교정 곳곳에도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듯이 우리들 가슴에 선배동문님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마음 한편에는 늘 언제나 친가족보다 더 큰 애정으로 후배들을 챙겨주시려 노력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배려해주시는 선배님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이 배어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 후배된 입장으로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

을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늘 말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대학동문 관계입니다. 같은 직장이나 일하고 있는 단체에 모교의 선배님이 계시면, 더욱이 같은 과 출신 선배님이 계시면 한시를 놓게되고, 심지어 같은 동료에게까지 알게 모르게 우월거리게 되는 것이 바로 사회에서의 동문 선후배관계가 주는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귀기울여 들어보면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선후배 동문간의 보기좋은 관계를 표현하면서 하는 말들이 '지원시원한 의리'도 오고가면서 은근히 그러한 동문 선후배 관계는 남성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끼리는 무엇인가 특별히 통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술자리 한번 거창하게 벌이면 만사형통되는 것처럼 '의리'로 뭉쳐 만들어 나가는

인간관계-남성동문 선후배 관계-가 일반적인 동문관계의 전형인 것처럼 이야기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여성동문 선후배 관계는 별다른 애정도, 끈끈함도 없는 양 취급되는 것 같아 조금은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의 일꾼들과 총여학생회의 사업에 단지 지도교수가 아닌 선배님으로서 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학생처장님의 애쓰시는 모습에서, 그리고 졸업을 얼마 전에 하셨거나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장래의 전망을 고민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먼저 답아 놓으신 의미있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평생의 생활의 터전을 소개해 주시고 도움주시는 여러 동문 선배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남성동문 선배님들 못지않게, 아니 어쩐 그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후배들을 받아주시는 여동문 선배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힘있는 사랑, 단결의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제6대 총여학생회를 이끌어 온 지 어느덧 한 학기가 다 지나갑니다. 그 동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총여학생회 해오름식, 연세 여성학교 그리고 대동제의 여학우 한마당까지 나름대로 숨가쁘

게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위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친동생처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고민들을 접하다보면 여성으로서, 여대생으로서 집안에서 혹은 학교에서 부딪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참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모아 총여학생회는 보다 풍부하고 진실된 내용으로, 보다 집단화된 힘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까진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더군요.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하여 우리 연세 여학우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자기 삶의 주인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사회생활의 경험도 없고, 그다지 많은 삶의 과정을 거처온 우리가 아니기에 여성의 문제, 여학우의 문제를 전폭적으로 받아안고 풀어나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가 받은 여동문 선배님들의 사랑만큼은 내리사랑 해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시 새로운 선후배로 출발할 연세 여학우들을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여동문의 이름을 더욱 빛낼 우리가 되겠습니다.

힘있는 사랑, 단결의 시작.



금·은·보 석 흔 수 에 물 단 체 선 물 각 종 트 로 피	美 麗 寶 미 리 보 김 혜 경 (1964년 경영학과 졸업) 김 희 영 (1964년 경제과 졸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공향터미널 지하이케이드 C-08 전화 : 551-0882~3	

언제나 그림기만 한 그날들



서승현/ 연기인 65년 음대출

모처럼 쉬는 날 큰마음 먹고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책장정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책장 옆에 수북히 쌓인 책 중에 맨 밑바닥에 놓인 꾸글꾸글하고 빛바랜 흰 책이 눈에 띄었다. 연세 극예술연구회의 발자취를 기록한 「연세 연극사」였다.

1920년대에 시작된 연회연극은 초기에는 무대 장치나 의상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졸업 행사에 등장하는 촌극이 고작이었다. 그 이후 1931년에 공회당에서 톨스토이 원작의 「어둠의 힘」을 공연하게 되었다. 당시 마땅한 여자배역을 구할 수 없어 공여지책으로 용모가 괜찮은 문과대 2학년의 최은수가 맡았다. 그의 맹연기는 당시 온 장안의 화제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1962년 5월 7일자 연세춘추의 한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갈채받은 「지평선 넘어」, 의욕있는 연기에 관중도취, 제17회 연회극예회 성공리에 공연. 본대학 대강당에서 공연, 유진오닐 원작, 오화섭 번역 「지평선 넘어」 조천석 동문 연출, 제임스 메이오 이광남(제3), 메이오 부인 서옥자(음 2), 루우스 오해령(영2)...’

이 연극이 바로 메이오 부인 역을 맡았던 서옥자가 서승현이란 이름으로 26년 넘게 연기자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옛날 대학시절을 회상하면 언제나 가슴 벅차움을 느낀다.

31년 전인 1962년 이른 봄이었다.

“서옥자, 누가 찾아왔어.” 하는 친구 말에 강의 실 밖으로 나가보니 4명의 남학생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타과 학생들이었고 선배 같아 보였다.

“서옥자씨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6시까지

연회극회로 꼭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요.”

“아니 왜요?”

“연극에 출연해 주십시오요.”

“어머나! 연극이라니요? 전 그런 것 못해요.”

하며 나는 수줍게 말했다.

“저희는 선배의 심부름으로 왔으니까 어쨌든 강의 끝나는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막무가내의 전언에 난 너무나 당황했다.

그러나 하늘같은 선배의 전언이라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나는 약속장소로 갔다. 그곳에 모인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들이었고 유일하게 낮익은 오해령이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 중 연출자인 듯한 분이 “응, 재야! 괜찮은데?”, “앉아요. 대본 갖다 드려... 자! 연습합시다.” 막무가내였다. 순간 나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다.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대체 경험도 없는 내가 연극을 어찌 해낼 수가 있겠는가 싶었다. 나는 몹시 당황하여 속이 울렁거리고 눈물까지 나오려고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본에 메이오 부인 역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아니! 꽃같은 나이에 부인역이라니...”

미치 내 의사를 표명하기도 전에 모두들 감정을 넣어 대사를 읽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는데, 첫 대사가 “여보”였다.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남학생을 보고 여보라고 부르려니 목소리는 재미같이 기어들어 갔고 얼굴은 빨개져 울음을 터트리기 일보직전이었다.

“저... 전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 괜찮아요. 잘 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



요.”하며 선배들이 격려를 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밤을 새며 이 기회에 연극을 한번 해볼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대학생활 4년 가운데, 일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남은 대학생활은 내 나름대로 보람있고 추억있는 생활을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나는 문과대학에 있는 연회극회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였다. 공연하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합숙을 했었다. 합숙하는 동안 남학생들이 너무나 친절히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연세남학생들은 참 신사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드디어 대강당에서 「지평선 넘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대강당은 입주의 여지없이 꽉찼고 계단까지 관객들이 앉아있었다. 연극은 성황리에 끝났다. 연극을 끝내고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허전함과 아쉬움을 느꼈다. 모두들 강당 위에 걸터앉아 조출한 파티를 열었고, 난 그때 못 먹은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울먹일 뻔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그 공연을 계기로 연극을 접하게 된 나는 졸업 후 TBC 텔런트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해오면서 타인의 인생을 표현하며 살고 있다.

1981년 6월 12일 졸업생과 재학생 합동으로 소모트 와일러 작 「matchmaker(중매인)」을 공연하였다. 20년 전의 무대에 다시 선 나는 서옥자가 아닌 연기자 서승현으로서의 책임감과 연기

“

아! 풋풋했던 내 학창시절을 떠올리니 선살먹은 내 몸이 새색시 마냥 붉어진다

”

자가 된 후 처음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연기한다는 호뜻한 마음이 공연 내내 나를 지배했다. 백양로를 빙삼던 선후배 모두 다 한 덩어리가 되어 진솔한 감정을 토해 내었다. 그런데 마지막 공연 날 난 큰 실수를 하였다. 「중매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르러 리바이 부인의 독백장면이 나온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코믹하고 떠들썩했던 장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관객을 향해 이 야기를 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감정을 잡고 서서히 무대 앞쪽으로 나오면서 대사를 하기 시작했다.

“돈! 돈은 햇빛과도 같아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하면서 난 핸드백 속에서 소품으로 마련한 진짜 달러를 들고 흔들면서 관객 앞을 지나갔다. 그때 앞줄에 있던 한 학생이 “아! 진짜 달러다.”라고 하는 소리에 관객은 웃기 시작했고, 연기를 하던 나도 웃음을 참지 못해 돈을 들고 함께 웃게 되었다.

관객들은 연극보다 내 웃음 터진 것이 더 재미있다는 듯이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이윽고 연극은 5분 가량 중단이 되었다. 나는 웃음을 참고 연극을 다시 이끌어 나가려고 아랫입술을 깨물며 무대를 왔다갔다했던 기억이 난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웃음이 참 많다. 요즘도 드라마 녹화 도중 웃음을 못 참아 NG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 이 풋풋한 봄날에 풋풋했던 내 학창시절을 떠올리니, 선 살 먹은 내 몸이 새색시 마냥 붉어진다. 아! 청춘이여! 아름다운 그날들이여! 언제나 그림기만 하다.

스물다섯의 반란



김별이/작가
92년국문과졸

공공 얼어붙은 연세동산을 배경으로 시퍼렇게
공공은 얼굴에 애써 어색한 웃음을 띤 졸업사
진을 여러 장 만든 지도 벌써 두 해가 되어간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변화무쌍했던
80년대 후반을 그 변화의 중심이었던 연세동산에
서 연세인으로 살았던 나에게, 대학생활은 폭탄처
럼 터져버린 것이어서 그 열기와 소소한 에피소
드 한 자락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쉬움만
남겨준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저 빨리 졸업을
해버리고 망망대해 같은 사회로 뛰어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밀리듯 졸업을 하고 나서
야 비로소 가장 좋은 젊음의 한때를 놓쳐버린
후회감에 젖는 것은 누구나 거쳐가는 이슬배반의
향로일 뿐인가.

가진 제주라곤 글밖에 없기에, 애써 수족을
놀리다 보니 어설피게도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졸업을 했으니 제 밥벌이는 해야겠다는
심정에 여기저기 청탁을 받아 원고를 쓰고 가끔
씩 온라인으로 입금된 원고료를 확인하면서 떠나
보낸 시간이 벌써 두 해를 넘겼다니, 절로 세월
빠르다는 새삼스런 한탄이 새어나온다.

아직은 스물 다섯.

너무 어린 나이에 문학동네에 뛰어들어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가 바로 나의 나이에 관한 것이
었다.

“정말 좋은 나이이다!(이후 한숨)”

“참, 내가 그 나이만 되어도...(이후 한숨)”

필연적으로 한숨이 뒤따르는 선배들의 넋두리
를 듣다보면 나는 시간의 뒷쪽으로 서서히 밀려
나 열일곱 사춘기 소녀로, 철없는 골목대장 꼬마
아이로, 그 한참 이전 엄마의 땃줄을 꿰고 나오며

세상의 빛에 지레 놀라 짹짹대며 울던 강보에
싸인 아이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나를 바라보며
자신의 스물 다섯을 떠올리는 초로의 그들 앞에
서 나는 고작해야 그런 기분밖에 갖지 못한다.
내 댄에는 제법 세상물정에 익숙해져가고 나이보
다는 조숙하다고 은근히 자부하던 차에 새삼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어쩌면 물처럼 흘러보내는 시간, 익숙해진
일상 속에 나의 젊음을 내맡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 대학을 다니던 도중 이른 결혼을 감행
해 벌써 네살배기 사내아이의 엄마가 되어있는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졸업 후 한동안 기혼여성
에게 일자리를 내놓지 않는 세상과 부대끼며
상처를 받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열일곱, 그 눈부시던 날에 만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보들레르를 읽고 브레히트를 읽고 김민기
와 정태준, 조동진과 나나 무스구리와 멜라니
사프카를 함께 노래했던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
로, 한 아이의 엄마로 제법 태를 내고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나는 일찍 세상에 지쳐버린
듯 어떤 사건에도 심드렁한 애 어른이었다. 그녀와
나는 오랜만에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우리가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우리를 먹어가면
서 우리는 점점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고, 새삼
우울해졌다.

그녀는 전망없는 직장생활을 한탄했고 그래도
시계추처럼 움직이며 밥벌이를 해야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하소연했다.

그녀만큼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여자를 내가



언제 다시 만났었는가. 열일곱 소녀였을 때 나는
문학을, 그녀는 연극을 사랑했다. 그녀의 빛깔은
약간 검은 빛이 돌만큼 진한 보라색이었고 조동
진의 '제비꽃'을 부를 때면 고스란히 보라색 자그
마한 제비꽃의 모습이였다. 우리가 자란 작은
도시에서 떠돌이 극단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아
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메우던 그녀였다. 그때
만해도 스파르타식 입시교육을 강행하던 고등학
교에서 비민주적으로, 학생들을 단순히 대상으로
만 바라보던 선생님들 앞에서 감히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반항(?)을 했던 그녀였다.

그녀가 곧 나였고 내가 곧 그녀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대로 대학을 선택했
고, 나는 국문과로 그녀는 신방과로 진로를 정했
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낱길거리며 남편을 보았고 나는 애인
홍을 보았다. 그녀는 부쩍부쩍 자라는 자신의
아이 이야기를 한참이나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나는 열심히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러나 문득, 내가 요즘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문학적 고민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한참이나 벌어져 있는
우리 사이의 틈을 발견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
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
지 못했고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더욱 장황해졌
다. 그녀는 막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나를
부러워했고 자신은 사회적 처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답해 했다. 하지만 자꾸 그녀의
말이 변명같이 느껴지는 것은 왜였을까.

아직 결혼생활을 해보지 못해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자건 남자건 자신의 재능을 창고
속에 처박아두면서 누리는 행복은 정당한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2인 1각으로 뛰어가는 것이 인생길
이고 젊은 우리가 꿈꾸어야 할 세상이 아닐까.

나는 열렬한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오히려 남녀
관계에 있어 약간은 보수적인 편이지만 그 어떤
사회적 처지와 거미줄 같은 관계를 떠나 나의
삶을 간섭하고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
히 맞서싸워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하고 가꿔
나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자포자기하고 그저 세상에 순응하기에는, 스물
다섯이란 나이가 너무 아깝지 않은가. 아니, 스물
다섯의 나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이도 아까울
것이다.

시간은 어차피 우리를 배반하며 앞으로만 달릴
것이고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뒤처지고 뒤떨
어지는 것이므로.

그 며칠 후, 차가운 방바닥에 배를 깔고 또
무언가를 끄적이던 나에게 그녀의 전화가 왔다.
나의 말들이 나태해진 자신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고, 고맙다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전화를 끊으며, 나는 다시 한번 펜을 꼬옥 힘주
어 잡아 몇 자를 적어내렸다.

스/물/다/섯/의/반/란

여권신장의 길잡이가 되기를...



권영순/
고대여자
교우회회장

연세대학교 여성동문들로 구성된 「백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 동안 이모임을 위해 일해온 회장님과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명문사학으로 양대산맥을 이루며 날로 발전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근대사의 주역을 차지해 왔습니다.

봉건적인 유교문화가 지배하던 사회구조 속에 신학문이 도입되고 민족사학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여성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8·15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정부는 당시 경성제대(서울대의 전신) 연희전문(연세대학교의 전신) 보성전문(고려대학교의 전신)에 남녀공학제를 허가했습니다. 비로소 '금녀의 성' 남자만의 대학에 여성을 위한 작은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몇 명 안되는 여학생들은 초창기 남녀공학의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며 여성불모지를 개척해 나가는데 선각자적 의지와 정열을 쏟았습니다. 이렇듯 선구적인 여성들에 이어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이는 반세기 만에 이룩한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교인 연대와 고대, 고대와 연대는 여성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많은 인재를 사회 각계각층에 내보내어 남성 못지 않는 활약을 보임으로써 모교의 명예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어 상대적으로 행동반경이 좁았던 학창시절, 서로 의지하며 다정하게 지냈던 여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자주 모임을 갖고 모교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창회는 모교와 더불어 발전하며 회원이 친근감을 갖고 활용하는 사랑방이기 때문에 동창회가 없는 졸업생들은 외로울 것입니다. 보수적인 남성중심의 사회, 그 어디서나 우리 여성의 설자리는 좁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존동창회 안에 우리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서 소속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던 중 연세대학교와 같이 우리 고려대학교에도 몇몇 분의 노력으로 동창회 안에 여성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교와 교우회를 돕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고대 석난회 장학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모교 여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그 뜻을 모았습니다. 모교 여학생 모임이 있던 「金蘭會」에서는 개교기념일 행사 때 여자졸업생을 초청하여 「石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자녀의 손을 잡고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는 여자교우들의 수도 해마다 늘어 났습니다. 또한 졸업생 모임인 「石蘭會」에서는 2월25일 졸업식에 앞서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하고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본회 입회를 성대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모두 쓸쓸한 졸업식을 경험한 터라 사은회에 맞추어 갖는 이 행사는 참으로 호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시대 상황의 변화와 환경에 맞추어 그 운영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여성들의 고학력화 추세에 힘입어 많은 여자졸업생이 배출되므로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환영행사를 갖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학생회가 없어졌으며 사은회도 각과별 행사로 2학기 말까지 끝내버린다

“
이 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 급속하게 무너져 가는 독을 막는
방파제가 됩시다.
”

하니, 여자교우회에서는 매년 졸업가운 대여시에 특별히 제작한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약 800명의 여자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들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교양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모교 교수님이나 회원중 강사, 또는 각계 명사를 초빙하여 시대에 맞는 주제별 강좌를 갖는다는 것은 회원들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참여도를 높이고 회원 관리를 위한 한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계, 관계, 언론계, 가정 등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자아를 정립한 자랑스런 회원을 찾아 영전 축하회나 출판 기념회를 열고 다같이 영예의 기쁨을 나누며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더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에는 회감을 맞은 선배교우를 축하하는 자리를 겸하고 있어 뜻깊은 '친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신년하례회 야유회 등을 통해 친목, 담소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날로 확충되는 장학사업을 조직화하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1년 「고려 여자교우장학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장학금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액, 수혜자 인원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학회를 통해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사랑과 정성과 뜻을 모아 모교와 교우회를 돕고 있어 큰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과 현 회장단이 기금관리위원이 되어 장학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활성화나 참여를 위해 각 기별, 과별 대표들이 회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과 해외에도 조직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모교와 교우회가 주관하는 「高大人의 날」 행사시에는 여학생 감실과 공동주최로 여학생회관에서 선후배 간담회를 열어 각분야에서 활약중인 선배들과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이 학문, 직장, 결혼 등 당면한 여성 진로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선후배 작품전시회도 가졌습니다. 행사장인 녹지캠퍼스에서는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대마크가 새겨진 기념품, T셔츠, 원피스, 티스폰 등을 제작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인촌기념관 건립기금, 서창캠퍼스 호상건립기금, 교우회관 건립기금을 기탁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5일 개교기념일 행사 때는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고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어린이용 기념 T셔츠를 만들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자교우회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4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 여자교우들의 모아진 뜻을 후대에 전승하고자 「여자교우회 25년사」를 출판하여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학재단을 설립 해 회원들의 작품, 소장품, 작가들의 회사품 등을 모아 작품전시회를 열어서 장학기금 1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모두는 자유, 정의, 진리 마음의 고향 모교와 함께 그 숨결을 같이 하며 여성특유의 지력을 모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펴봅시다. 나아가서 이 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 급속하게 무너져 가는 독을 막는 방파제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성운동의 구심력이 되고 여권신장의 길잡이가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바야흐로 21세기 개방시대를 향해 세계로 웅비하는 양대사학, 곧 영원한 맛수 영원한 친구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연세백양」 제 2호의 발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연세인

'86년 미국에서 돌아와 한양대에서 정치학과 미래학을 가르쳐온 지 벌써 7년이 된다. 여러가지 재미있고 보람찬 일들, 그리고 가슴이 저며 오는 경우도 많았으나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기에 소개하고픈 얘기가 있다.

한번은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맞붙었다. 같이 구경하던 제자 하나가 불쑥 이렇게 물어왔다. "선생님은 어느쪽을 응원하고 계십니까?"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하고 스스로에게 다시 자문해보았다. 나는 어디가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를 한양인으로서 동류화시켜 교수와의 일체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애뜻한 눈빛과 나의 내면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연세인으로서의 자아가 마주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 불과 5분 정도가 흘렀으리라. 내입에서 "연세는 나의 어머니이고 한양은 나의 아내이다"라는 대답이 터져나온 것이.

이 순간에도 그때의 대답이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연세를 나의 어머니로 상징하는 시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제



공성진/한양대교수 76년 정외과졸

는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세전다방에서 'White Shadow of Pale'와 'Heart of Gold'를 들으며 시작되는 나의 일과는 백양로와 청송대 그리고 무척이나 오르기 힘들었던 교양학부 등을 거쳐 신촌시장 안의 막걸리 집에서 끝나곤 했다. 그리고 가끔씩은 경기장에 나가 젊은 함성을 내뿜곤 했던 일도 중요한 생활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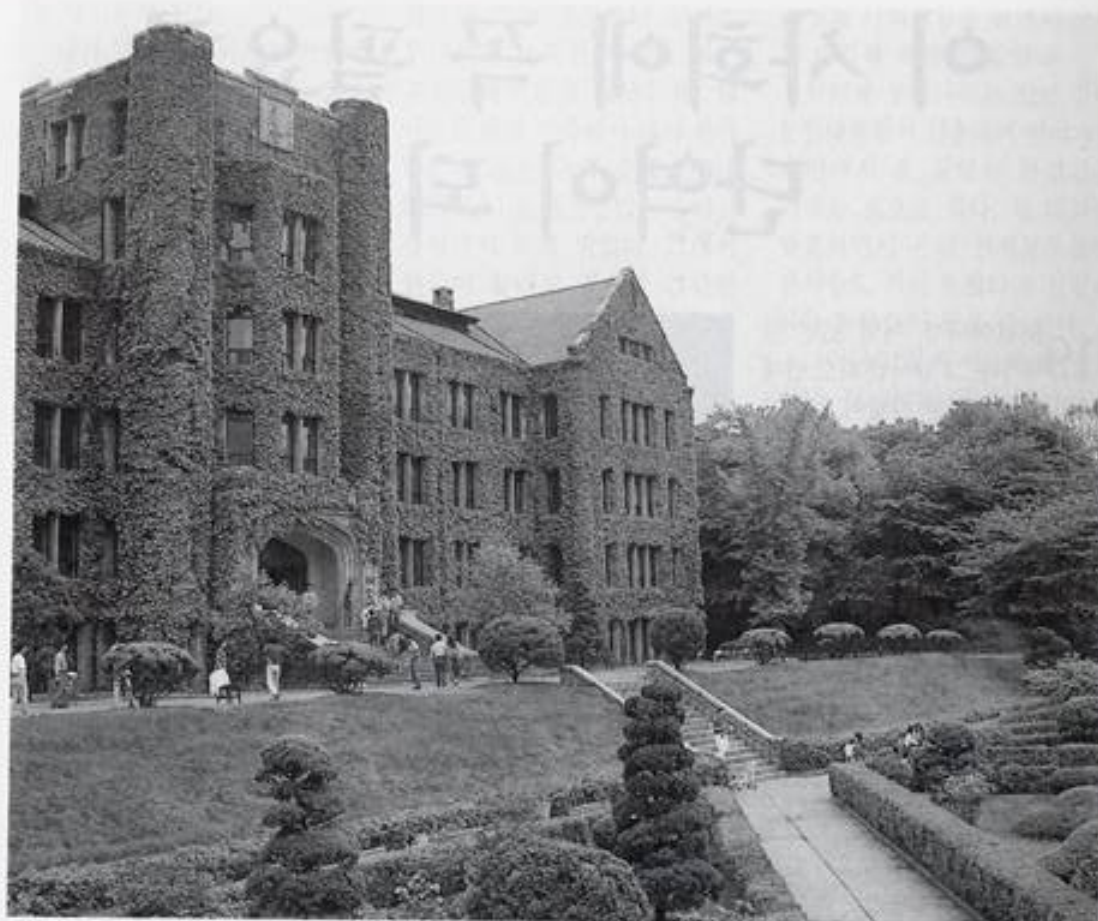
4년간 반복된 이런 삶이 결국은 연세를 내 가슴에 어머니처럼 깊이 각인시킴으로써 오늘날도 그리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중의 존재(being of being)로, '선택 밖의 절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머니의 그것보다 가볍다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 아내는 아내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다. 언제나 돌아가 안길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품이라면 아내는 서로의 꿈을 함께 키워야 한다. 아내와는 끊임없이 일체감을 공유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한 곳에 다소곳이 비껴서 있다. 자식의 모습을 대견스러워하면서 말이다.

연세나 한양이나, 칼로 무우 썰듯 양단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 이듯이 아내와 어머니를 함께 사랑할 수 있다면 이는 삶에 정통한 보다 성숙한 자세일 것이다. 이것은 연세, 내 어머니가 가르쳐준 '백양로의 빛'이다.

가끔 이런 질문도 받는다. 전허교수 타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대학인의 길을 택했는가. 시중을 들어야 교수가 될 수 있다는 통념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질문일테다. 응원단장을 지내고 거칠기 짝이 없다는 해병대 출신이니 당연한 질문이다. 1975년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학과 장을 만났더니 "내가 응원단장인 줄은 알았어도 우리과 학생인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 무리도 아니다.



“
‘있는 지면 뿌리로 떨어진다’고 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연세는 내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

하지만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현상학이나 미래학이 시사하듯 천편일률적인 학사과정이나 현실안주적인 사고구조는 내게 있어 명제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였다.파격의 철학이 현상학이요, 창조와 상상력의 세계가 미래학

이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그 시절 천의무봉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의 그 경험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픈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있는 지면 뿌리로 떨어진다’

고 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연세는 내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존재는 어떠한 명제에도 우선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백양로의 울골음이 길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곧 모든 연세인의 마음일 것이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단역이 되어

1958년이니까, 어언 35년 전 얘기다. 그 당시만 해도 연세 대학교에 변변한 강당이 없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행사를 모두 노천극장에서 치를 때다. 연극을 좋아하시던 용제 백낙준 총장님 때문은 아니겠으나 영문과의 오화섭 교수가 지도하시던 연희극예술연구회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매년 가을 한차례씩 노천극장에서 연극을 해오던 때다. 대부분의 연극반 회원들은 문과 대학생들이었고 문과대학생 외의 연극반원은 별로 없었는데, 정의과에 다니던 나는 어쩌다가 오화섭 교수의 영어수필강독과 회독 시간을 택해 수강하다가 연극반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때의 연극반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졸업할 때까지 빠지 못하는 이상한 풍토여서 요즘말로 '못말려'였다. 졸업생들도 계속 드나들었기 때문에 단원들 간의 유대관계가 매우 끈끈했었다.

지금도 내 기억에 생생한 연극반 추억이 있다. 오화섭 교수의 변역극, 투왈라이트윅(Twilight week)을 연습하는데, 이 극중에 아더(Arthur)라는 노인역이 나온다. 연극이 거의 끝날 무렵에 대사 한마디 없이 무대 왼쪽에서



유재진/변호사 60년 정의과를

나와서 바른쪽으로 걸어가는 역이다. 연극반원들 중에 아무도 이 역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에 빠졌을 때, 내 친구 J가 이 역을 맡겠다고 자청하였다.

연극하는 날 밤(노천극장에서 한번만 공연하는데, 조명 때문에 낮에는 못하고 저녁에만 공연이 가능했었음), 내 친구 J는 어머니, 누님들 그리고 동네의 친구 여동생들까지 여러 관객을 초청해 왔었다. 어머니, 누님들 그리고 이 친구를 보러온 친구들은 첫막부터 친구가 나오기를 잔뜩 기다리며 연극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막이 다 끝나고 제2막이 끝나가도 이 친구가 등장하지 않으니, 모두들 이 친구가 뒷스텝으로 연극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제3막도 거의 끝날 무렵에 무대 왼쪽에서 잠옷을 입은 영감이 두리번거리며 등장하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서둘러 무대 오른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와 가족들은 너무 서운해서 허무함까지 느꼈다는 후일담을 들었던 적이 있다.

이 하루저녁 잠깐의 역을 위해 내 친구 J는 두달 동안 연습을 하는데 한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시간을 어긴 적도 없었다. 전체 배역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제 역을 잘 소화해냄으로써 많은 반원들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지금 이 친구 J는 한국 굴지의 재벌회사의 사장이다. 어느 회사라면 다 알만한 회사인데 전 직원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의 책임감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인기 없는 역을 스스로 자원하여 충실히 감당하는 그를 누가 싫어하겠는가? 일생을 통해서 나는 이 친구(나의 고등학교와 대학 동기 동창생)를 잊을 수가 없고, 모교 연세대학을 생각하면 이 친구를

늘 생각하게 된다.

내가 연극을 좋아하는 까닭에 우리집 아이 삼남매도 중·고등학교 때에 모두 연극활동을 했었다. 미국에 오랜 기간 살았기 때문에 위의 두 남매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녔으며, 막내는 3년 전 고1 때 함께 귀국하여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된다. 막내는 고1로 전학을 오던 첫해에 학교 연극에 참가하게 되었다. 몇 달 간을 아침에 한 시간 전에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 남아서 연습을 하고 오곤하더니 드디어 공연날이 되었다고 우리 내외를 초대하는 것이다. 무슨 역을 하는지 사전 예비지식도 없이 연극을 보러가서 아들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연극을 감상했다. 이제 나 저제나 하며 기다려도 아들은 나타나지를 않았다. 옛날 내 친구 J를 생각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막내가 무대에 등장했다. 아들은 멕시코복장에 가구를 메고 등장하여 주인공 집문예대 대고 "가구 배달왔습니다. 어디로 디립갑쇼?" 하고 외치는 대사 한마디 하고는 짐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었다.

많은 관객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훌륭한 연기였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대사가 많은 주연급 배역보다도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인데도 아들은 아주 코믹(Comic)하게 잘 해냈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혼자서 좀 섭섭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 동창네 아이, 후배 모씨의

딸들은 모두 첫막부터 끝까지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는 주연급배역들을 해냈는데, 내 아들은 뭐가 부족해서 대사 한마디밖에 없는 단역 중에 단역(EXTRA)을 배정받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열렸던 간단한 다과회에서 몇몇의 학부형들이 막내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것이 마치 나를 비웃는 듯한 느낌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막내의 얘기를 듣고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다. 막내의 말에 의하면 연극에서

“**일생 잊을 수 없는 큰 교훈의 씨이 연세동산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늘 감사한다.**”

는 출연하는 사람 모두가 중요하며, 한 사람이라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배역 모두가 귀중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배역 선정 때는 대본을 미리 받아다 읽어본 후에 각자 맡고 싶은 역을 얘기해 보라고 해서 자기는 점군 역을 자원했다는 것이다.

아들에게서 큰 일깨움을 얻었다. 늘 학교에서 일등하기만 기대했고, 주연만 선호했던 나 자신이 몹시 부끄럽게 느껴졌다. 연세동산에서 내 친구 J를 통해서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민주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미 배웠던 내가 치열한

경쟁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두 다 망각해 버린 것 같았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32년 만에 문민대통령이 선출되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온 국민의 한결같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 내각이 발표되면서 우리 연세동문들이 한사람도 끼지 못했다고 섭섭해하는 동문들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그렇게 서운해 할 일도 아닌 것 같다. 권세나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연세동산에서 옛날 스승님들—백낙준, 최현배, 김을경, 조의철—께 배운 것은 일등하고, 주연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는 진리를 배우고, 매일매일을 멋있고 보람있게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마음의 평화를 지니라는 것, 그것이 아니었던가!

모두 일등만 원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남보다 앞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단역배우들 같은 우리 연세동문들이 이 사회의 밑거름들이란 생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내 친구 J군과 내 막내아들의 연극활동을 통해서 일깨워진 일생 잊을 수 없는 큰 교훈의 씨이 연세동산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리운 배움의 집 연세품에 안기어 뛰놀던 그 시절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한다.

1) 1993 가을 학기 여성자원개발 프로그램마련

여학생처(처장 : 윤선 식품영양학과 교수)에서 여성의 자기발전, 자기설계,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 여성자원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여성이 자기발전을 토대로 한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시켜 자기가 소속된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여동문 및 연세가족, 그리고 일반 신청자 등 1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좌는 9월 <열린사회, 열린사고>, 10월 <풍요로운 삶>, 11월 <지구촌을 움직이는 정책>이란 월별 주제 아래 매주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수강 기간은 9월 2일부터 6월 25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로 장소는 알렌관 제 1회의실이며 수강료는 학기당 6만원이다.

2) 학교채 7억5천여만원 판매

부족한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사 및 기숙사 증축기금 마련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발행한 학교채권의 판매 및 매입액 액수가 7억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발행된 채권은 주로 신입생 학부모들에 의해 매입되었는데, 특히 매지캠퍼스의 신입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한편, 발전·동문사무국(국장 박우서 교수)은 금년목표인 35억 판매달성을 위해 재학생부모 및 각 대학원생, 동문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세우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3) 동문회관 봉헌

연세동문들의 사랑방 동문회관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10만 연세동문들의 <벽돌 한장의 정성>이 모여 그 위용을 드러낸 동문회관의 봉헌식이 창립기념일에 방우영 동문회장, 송자 총장, 이상희 여동창회장을 비롯한 2천여 연세가족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건립위원장인 방우영 동문회장은 준공사에서 "백주년기념관에 이은

두 번째 모교사랑의 벽돌쌓기 운동의 결실인 동문회관이 이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감격해 하며, "14만 연세동문들의 정성의 결실 동문회관은 연세인의 영원한 자랑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 우리의 보금자리를 자주 찾고 많이 아끼고 사랑하자고 했다.

지난 91년 5월에 착공되어 만 2년 만에 준공을 맞은 동문회관은 세브란스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지면적은 4,918평, 연면적 2,087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규모에 주차규모는 110대에 이른다.

건물내부는 다목적홀, 대회의실, 전시실을 비롯 소극장, 대식당 등을 갖추게 됨으로써 연세인의 각종 모임은 물론 신년하례, 결혼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여동문의 날 열려

지난 5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신록의 5월 연세동산에서 총 여동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400여 여동문들이 총장 공관 뜰에 모여 다시 캠퍼스시절로 돌아가 옛정을 되살렸으며, 총장 사모님께서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신 불고기 파티는 더욱 이 모임의 정취를 북돋아 주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흩어졌던 여동문 모임들이 하나의 총 여자동문회로 결속되어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뜻깊은 모임이었다.

이날 송자 총장님으로부터 심치선동문(이화여고교장, 61년사학과졸), 홍정혜동문(적십자간호대학학장, 51년간호대졸) 최명희 (울지병원 간호부장, 47년 간호대졸) 동문은 연세를 빛낸 노고의 감사패를 증정받았다.



여동문회 1993년도 사업계획

- | | |
|---|--|
| <p>3 월 정기총회
이사회조직</p> <p>6 월 여자동문의 날 평가회
여자동문 체력단련 대회</p> <p>9 월 재활용품 수집 전달 - 충여학생회
(의류, 책, 가방 등)</p> <p>12 월 이사회 및 송년 모임</p> | <p>5 월 여자동문의 날 개최
동문회 사무실 확보 - 동문회관내바자회</p> <p>7 월 "연세백양"지 발간
동문주소록 발간</p> <p>10 월 동문과 재학생의 대화의 광장
주제 : 사회진출에 대한 조언</p> |
|---|--|

여동문 발전기금 기탁자 명단

성명	졸업년도	졸업학과	금액	비고
이상희	1958년	교육학과	3,000,000	
윤선	1967년	식품영양학과	3,000,000	약정
유승미	1959년	정외과	2,000,000	약정
한혜경	1963년	사학과	2,000,000	약정
김정식	1969년	의생활학과	1,000,000	약정
장명	1967년	경제학과	1,000,000	약정
이진안	1967년	의류생활학과	1,000,000	
홍정혜	1945년	간호학과	500,000	
최명희	1947년	간호학과	500,000	
오정신	1960년	수학과	500,000	약정
주동금	1967년	법학과	500,000	약정
손승영	1974년	사회학과	300,000	약정
김희영	1956년	법학과	300,000	약정
문은희	1964년	교육학과	300,000	
김종미	1976년	지질학과	300,000	
강경화	1977년	정외과	200,000	약정

여성최고 경영자 과정 입학 안내

- 모집인원 : 약 50명
 - 대 상 : 여성 전문경영인, 예비 여성 전문경영인, 여성 공무원
전문직 여성, 전문경영인 배우자
 - 수강기간 : 1년 과정
 ◎1학기:1993년 9월 8일 - 12월 22일(16주간)
 ◎2학기:1994년 3월 9일 - 6월 22일(16주간)
 - 지원 및 전형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1993년 7월 19일(월) - 7월 22일(목)
 - 나. 구비서류
 - 1) 입학지원서(소정용지) 1통
 - 2) 증명사진 4장
 - 3) 본인 및 회사소개서(소정용지) 1통
 - 다. 전 형 료 : 50,000원 납부
 - 라. 전 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강의시간 및 장소
 - ◎ 강의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6시 30분
오후 6시 30분 - 8시 저녁식사 및 자치회 활동
 - ◎ 강의장소 :알렌관 제 1회의실
- ◎기타 사항은 여학생처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361 - 2136, 392 - 3673
 Fax : 392 - 36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우편번호 120 - 749)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 안내

1. 학교발전 기금조성 목적

- 가. 교육시설의 확충
- 나. 연구기자재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 다. 학교전산망 확충
- 라. 도서관입
- 마. 연구활동 진작 및 강화
- 바. 복지시설 확충
- 사. 기타 면학분위기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2. 목표액 : 약 500억원

3. 기금출연대상

동문, 학부모, 교직원, 대학(원)생, 기업체, 각종 재단, 일반인(사회단체), 정부, 기타

4. 기탁 (납부) 방법

- 1) 일시 및 분할기탁
- 2) 적립식 납부

1993년 월

연세대학교 총 장 송 자

연세 발전 기금(여동문)

기탁금: _____ 원

_____ 원 약정(기탁 예정 199 년 월 일)

한일은행: 126-353709-01-001 예금주: 여동문 발전기금

*온라인 입금의 경우 성명과 입금액을 발전·동문사무국 (전화 361-2244, 2248)으로 알려주시시오.

성 명 :
학과, 입학년도 :
주소, 직장 :
전화 번호 :

학과, 년

주소록

■ 명예회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탁 순 회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총장공관 송자 총장 부인	361-2010
이 선 영	종로구 사직동 262-3 방우영 총동문회장 부인	738-6434

■ 고문(역대 여학생처장)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심 치 선	서초구 반포동 한신 서래 APT. 2-502 중구 정동 32번지 이화여고(교장)	752-3343
한 양 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APT. 311-1004 연세대 교육과학대 학장	409-0407 361-3160
윤 복 자	강남구 대치동 진달래 APT. 1-504 연세대 주생활학과 교수	412-3425 361-3131
이 양 자	양천구 목3동 동신 APT. 10-104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643-7659 361-3118
이 은 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APT. 53-406 연세대 아동학과 교수	515-5995 361-3148
손 경 희	송파구 신천동 진주 APT. 10-305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418-4182 361-3117
윤 선	양천구 목1동 신시가지 APT. 406-307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현 여학생처장)	648-4713 361-2135

■ 고문(역대 회장)

성명	출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문 은 회	'63 교육	서대문구 신촌동 66	392-4819
김 형 순	'58 영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주 APT. B-113	783-4926
신 동 식	'62 정치외교	강남구 반포동 구반포 APT. 107-103 서울신문사 국장	599-6678
이 정 현	'51 영문	중랑구 상봉동 207-23	491-7611
석 현 중	'62 도서	강남구 반포동 구반포 한신6차 APT. 214-208 연세대 중앙도서관 수서계 주임	599-5432 361-3309

김 성 록	'58 사학	영등포구 당산동 5가 7-2유원 1.2차A. 202-1103	675-5468
신 갑 순	'59 음악	종로구 평창동 473-2 『살과꿈』발행인, 연세대 음대교수	352-7893
임 호 빈	'56 신학	마포구 성산동 200-224 연세대 어학원 한국어학당 전임강사	304-2925
이 금 영	'60 수학	용산구 이태원동 청화 APT.20-407 미8군 재무처 전산실장	798-5959

■ 임원

직 위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장	이 상 회	'58 교육	은평구 불광동 3동 480-171	387-1334
부 회 장	유 승 미	'63 정치외교	성북구 성북동 15-69	762-1722
총 무	이 진 안	'71 의생활	종로구 구기동 86-1	356-6644
총 무	양 은 선	'77 사회	종로구 안국동 8-1	732-7655
회 계	맹 국 강	'64 수학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 APT.5-911	567-8241
회 계	주 순 향	'65 물리	서대문구 연희동 112-2	324-0744
편 집	추 애 주	'69 영문	강남구 신사동 현대맨션 12-202 연세대 강사	543-9359
편 집	왕 세 경	'77 정치외교	과천시 별양동 주공 APT.642-304	504-7829
섭 외	장 명	'71 경제	강남구 개포동 현대 1차 APT.101-903 연세대 강사	573-3354
서 기	김 영 란	'77 정치외교	강남구 논현동 250-9 현대빌라 D-4	511-8110
서 기	윤 영 주	'86 식생활	용산구 청파동 1가 1-17 연세대 여학생처	714-3548 361-2136
감 사	이 순 회	'63 생물	서대문구 연희동 112-12	337-9650
감 사	송 영 회	'69 도서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APT.112-905	542-6244

■ 이사 주소록

■ 문과대학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한 혜 경	1963 사학	서초구 서초동 1486-17 청광 아트빌라 202	588-8125
김 지 명	1970 영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APT.33-103 한국 동시통역 연구소	557-0770 540-0770
한 삼 록	1958 영문	강남구 역삼동 827-46	568-5159
박 총 연	1976 영문	종로구 평창동 445-13 종로구 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58-7263
최 춘 애	1977 사회	서초구 서초동 우성 APT.12-402 KBS 보도본부 보도제작 1부	556-1522 781-4311-3

■ 상경대학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지 정 진	1956 상학	은평구 불광동 미성 APT. 10-1405	354-6765
김 채 련	1958 경제	서초구 잠원동 한신 10차 APT. 331-410	535-6223
이 상 란	1961 경제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 교수	710-9313
홍 선 주	1982 경영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APT. 77-705 시카고 은행 영업부장	543-1688 316-9720

■ 이과대학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오 정 신	1960 수학	성북구 안암동 5가 102-76	925-0220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유 의 경	1964 화학	서초구 양재동 120-8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577-4127
김 미 영	1966 수학	마포구 서교동 367-367-5 창미꽃꽃이회 회장	337-0945
김 명 원	1968 생물	서초구 서초 3동 1546-6 현대하이츠빌라 가-310 연세대 문리대 생물학과 교수	585-8806
이 향 순	1979 천문대기	강남구 자곡동 220-6	459-0181

■ 공과대학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문 수 욱	1976 식품공	수원대학교 유전공학과	761-3901 (0331)32-2101
손 태 욱	1978 건축공	강남구 대치동 미도맨션 APT. 208-1106	564-8418
안 혜 자	1978 식품공	서초구 서초동 삼호 APT. 11-603 영등포구 양평4가 23 롯데그룹중앙연구소	567-2547
조 경 화	1983 요업공	마포구 도화동 우성 APT. 6-808 대우통신(주) 반도체사업부	703-6812 864-8200
김 윤 지	1984 식품공	대전시 동구 용전동 166-17 한국 식품개발연구원	(042)72-4883 (0342)40-5148

■ 신과대학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서 정 도	1985 신학	도봉구 창동 삼성 APT. 108-1604	903-1455
최 만 자	1960 신학	서초구 서초동 1565-21	583-2721
최 민 수	1965 신학	성동구 용봉동 대림 APT. 6-606 천성교회 사모	295-1005 486-3526
윤 정 애	1971 신학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 APT. 25-509	599-3142
정 복 자	1976 신학	강동구 둔촌동 주공 APT. 436-706	486-3526

■ 사회과학대학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이 의 숙	1963 정치외교	강서구 발산 1동 723-8	603-8634
전 혜 경	1963 정치외교	서초구 방배동 12-23	299-3447
최 신 자	1964 정치외교	성북구 성북2동 309-4	765-5857
김 혜 원	1969 신문방송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 7차 APT. 115-705 코리아 헤럴드 정치부	571-2654 765-7712-5
강 경 화	1977 정치외교	국회의장 비서실	335-7850 788-2155

■ 법과대학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김 희 경	1960 법과	강동구 상일동 174 우성빌라 7-301 노동부 안성여자 직업훈련원	427-1555 (0331)51-4310
이 화 숙	1969 법과	강남구 대치동 선경 APT. 3-608 경원대 교수	567-4664 (0342)750-5240
주 동 금	1976 법과	서초구 서초4동 진흥 APT. 8-1105 성신여대 (강사)	567-1989
김 정 선	1988 법과	성동구 정릉 2동 192-198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914-9762 579-1984
지 영 림	1990 법과	강남구 논현동 151-8 520호 정부제2종합청사 법무부 자문위원실 연구위원	549-1406 503-7038

■ 음악대학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최 영 자	1959 기악	은평구 신사동 21-6	303-8706
박 길 주	1966 기악	성동구 옥수동 현대 APT. 101-902 서울예고 Piano 강사	297-9991
김 익 자	1967 성악	성북구 구의동 248-34 17/1	453-1515
박 태 경	1970 교육	양천구 목2동 왕자 APT. 7-902	651-1831

양 경 자	1972 기약	서대문구 연희3동 40-30	335-6074
-------	------------	-----------------	----------

■ 생활과학대학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이 영 자	1968 식생활	강남구 청담동 진흥빌라 3동 105호 리바트 영동대리점	517-0689 544-1656
유 영 희	1970 주생활	마포구 성산동 200-282 웅진출판 주식회사	373-2868 777-7133
김 광 경	1971 의생활	서초구 방배동 궁전 APT. 1-103 대전산업전문대학	582-9977
김 정 식	1973 의생활	우성애프라인 대표	544-6246
신 난 숙	1973 의생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B2 신난숙 한복집	512-0110

■ 교육대학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임 정 신	1959 교육	송파구 가락동 174-20 401호 서울 YMCA 강사	408-9548 354-9650
이 진 분	1969 교육	종로구 구기동 850/12 조형빌라 103호 상명여대 교육학과	534-5055 421-7243
신 명 희	1972 교육	서초구 반포동 100- 삼익반포빌라 310호 연세대 교육학과	(0338) 73-5965
송 은 희	1983 체육	송파구 잠실 1단지 주공 APT. 56-103 홍보사	
정 지 희	1984 체육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서리 603-2	

■ 의과대학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정 을 순	1960 의학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미 APT. A-505 고려병원 내과(의대 여동문화 회장)	782-2975
김 용 진	1966 의학	김용진 내과(의대 여동문화 부회장)	575-2453 422-9030

박 계 숙	1976 의학	서초구 방배동 삼호 APT. 라 804 연세대 가정의학과 교수, 보건진료소장	361-3345
최 규 옥	1970 의학	서초구 방배3동 신동아 AP. 7-1205 연세대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 교수	583-4568
이 동 화	1973 의학	순천향대학 부속병원 임상병리학 교실	566-4315

■ 치과대학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이 성 희	1977 치의학	도봉구 창2동 601-8 이덕은 치과	933-4463
권 택 건	1978 치의학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 APT. 1-1402 동작구 상도3동 324-1 권택건 치과	846-2198 821-0719
최 돈 옥	1978 치의학	강남구 대치동 국제 APT. 375-2001 강남구 대치동 1019-15 아주빌딩 206호 동남치과	563-3388 566-2612
백 일 수	1980 치의학	군포시 산본동 삼익소월 APT. 375-2001 안양시 안양4동 676-141 백치과	(0343) 79-1410 (0343) 46-2778
김 영 원	1982 치의학	서초구 서초4동 1312 삼익 APT. 10-809 서초구 반포동 746-10 한영치과의원	566-5052 548-3482

■ 간호대학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홍 정 혜	1951 간호	송파구 오금동 대림 APT. 5-1403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403-8411 735-2956
김 소 인	1961 간호	서초구 방배동 삼호 APT. 14-408 고려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537-2245 920-6230
김 영 자	1963 간호	동작구 상도1동 764-3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813-3919 361-6763
이 규 정	1968 간호	강남구 삼성1동 95-15 영동세브란스 간호부	545-7360
문 정 희	1977 간호	도봉구 창동 347, 주공 APT. 323-205 신촌세브란스 수간호사	908-9748

■ 언론·출판계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신동식	62/정외	스포츠 서울 편집국 부국장	721-5302
김운라	68/영문	KBS 라디오 제작2부 부국장	781-4225
신연숙	76/사학	서울신문 생활과학부	
현옥	의생활	KBS 남원방송국 아나운서	0672-30-7100
최춘애	77/사회	KBS 보도국 보도제작부 차장	781-4311
홍은희	신방	중앙일보 문화부	7515-114
이현숙	신방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721-5173
주신아	의생활	여성자신 부장	780-0451~3
전숙영	78/정외	KBS 프로듀서	781-3971
김혜경	79/교육	스포츠 서울 연예부	
박광옥	불문	서울신문 TV 가이드 편집	
신세미	신방	스포츠조선 문화, 연예부	724-6873
이선주	사학	조선일보 생활부	724-5114
이정옥	80/불문	KBS 보도국 기자	781-4252
정경환	82/사학	동아일보 출판부	
최혜정	사학	가정조선	
권숙진	83/신방	중앙일보 데이터뱅크 정보개발부	
이경선	국문	중앙경제 문화부	761-3181
이미경	식생활	KBS 프로듀서	
손명성	84/신방	데이터뱅크 경제정보부	724-5114
이미경	정외	조선일보 생활부	724-6873
이화순	독문	스포츠조선 문화, 연예부	721-5427
강선임	86/신방	서울신문 뉴스피플	
제수미	법학	여성동아	
박경아	신방	동아일보 체육부	
이영이	영문	동아일보 경제부	751-5482
이강희	87/신방	동아일보 라벨르 잡지	781-4252
김혜례	신방	KBS 보도국 기자	781-3816~7
홍지수	88/영문	KBS 아나운서	
현경	주생	중앙일보사 영레이디	751-5482
강신희	신방	중앙일보사 라벨르	
김미진	사학	세계일보 편집부	
김용옥	89/도서	동아일보 안보통일문제 연구소	721-7630~5
서영아	영문	과학동아	724-5114
옥은주	영문	가정조선	724-5114
손정미	영문	조선일보 사회부	781-3816~7
이한숙	심리	KBS 아나운서	721-5427
안미현	영문	서울신문 뉴스피플	751-5396
이수은	중문	중앙일보사 하이틴	

박영자	도서	디자인 하우스	263-6900~5
권혜정	영문	세계일보 편집부	
김정희	90/사회	여성동아	721-7628
김현미	신방	음악동아	721-7645
이효영	불문	서울경제 국제부	724-2114
임수민	정외	KBS 아나운서	781-3816~7
정용실	신방	KBS 춘천방송국 아나운서	0361-50-7100
이선아	신방	중앙일보사 하이틴	751-5396
황현정	영문	KBS 아나운서	781-3816~7

■ 의류업계(전원 의생활 학과)

신난숙	73	신난숙 한복	562-0403
성정숙	74	성정숙 수예점	483-9951
황현숙	75	황현숙 의상실	776-9248
김애희	75	에반 애셀 베스트벨리	718-3242
장인숙	76	모라도	385-3777
김봉운	76	조이너스	335-0223
배정숙	76	대구대학 의류학과	335-0223
윤화영	76	FINE KNIT	553-2894
이금실	76	장안 전문대 의상학과	408-7130
이숙녀	78	장안 전문대 의상학과	
윤복희	78	김창숙	413-0621
최선화	81	신세계 디자이너	
장영순	82	모라도	966-2047
이양자	83	제일모직 남성복	542-2027
김선영	83	TBMS	0343-73-1225
안영미	83	FINE KNIT	
이경희	83	신세계	938-3582
이동연	83	반도상사	599-4247
이예식	85	AMS	982-0545
박희옥	85	화승	
손동희	85	한국 나이키	0343-42-2135
장혜숙	85	압소바	
최소영	86	까발로 스포츠	362-8446
고윤영	86	성진상사	388-6139
권수원	86	성진상사	981-8559
김미영	86	코오롱 스포츠	612-1008
백신경	86	까뜨리 네트	854-4179
손경미	86	벨라지	324-3596
신장순	86	비너스	032-652-7316
위옥경	86	화신물산	362-7201
유수현	86	백양	879-1622

이금녀	86	백양	424-6653
이선희	86	사반나	972-3277
정은미	86	제일모직	877-0991
조미옥	86	패션정보	362-6217
허윤영	86	삼성물산	387-6818
김명자	87	빈폴	
김현경	87	고려피혁	693-5117
민영순	87	AGENT	782-6364
박하선	87	AMC	352-4784
배리리	87	사랑방	453-1826
배선민	87	PBMS	373-8826
신지현	87	쌍방울	0343-44-0818
윤영남	87	반도 신사복	602-1024
이경희	87	ZRIS	389-2857
이해송	87	삼성 스포츠	833-1296
정미혜	87	생활용품검사소	303-8243
정혜경	87	비너스	762-1871
최희자	87	AGENT	353-0554
황주란	87	반도남성복	445-6361
권순아	88	유미파레트	665-4568
김남현	88	WILSON AGENT	426-4115
김인경	88	삼도물산	889-0427
김지현	88	AGENT	355-7691
송영숙	88	백양	593-5547
송일란	88	CORLAM AGENT	434-3048
안계환	88	FINE KNZT	337-4972
안자영	88	LEE 디자이너	602-5514
오유미	88	LEE 디자이너	488-8207
유미란	88	GUESS 디자이너	813-3919
유정림	88	제물라모 디자이너	504-1485
이난주	88	AGENT	385-0561
이옥경	88	FINE KNIT	032-652-5952
최미희	88	KELEX AGENT	915-7793
최지연	88	비아트	793-3011
한혜선	88	동일레나운	566-6231
김익동	89	E-LAND	963-5794
오경애	89	모라도	677-8998
유일희	89	A.M.C	548-6144
이근숙	89	뽕뽕	556-9053
이민옥	89	신원통상	308-4170
이윤주	89	E-LAND	306-6628
이주영	89	P.B.M.S	306-6628
이지은	89	제일모직	933-0564
이지현	89	다반	994-0510

정계현	89	빌리지	922-5255
정선교	89	반도	877-7319
정진아	89	코오롱	645-9912
정혜선	89	E-LAND	504-0440
진성란	89	영원무역	032-528-6881
최선미	89	MACY	032-883-7438
하형주	89	논노	332-8591
김미애	89	바라미 디자이너	914-3719
김민정	90	영원무역	544-0889
김영아	90	AGENT	976-7151
김이주	90	선경 디자이너	758-2630
김은정	90	다반 디자이너	83-6996
김지선	90	씨소 디자이너	536-2665
김혜련	90	논노	416-4565
민경덕	90	선 디자이너	648-6422
민희원	90	E-LAND	878-4775
박정숙	90	신홍모직 디자이너	292-2599
손성희	90	A. 품씨 디자이너	889-5526
양희경	90	은마차 디자이너	355-2517
이계명	90	클리포드 디자이너	400-4626
이남미	90	베스트벨리	780-8091
이영우	90	R.H.MACY AGENT	334-0009
정선미	90	빌리지	373-7473
조연실	90	AGENT	754-0770
최한미	90	AGENT	417-4295
한경희	90	AGENT	485-4600
황성원	90	메르블레디	624-5026
강성미	90	베비라	854-5428
강혜림	91	회신물산	536-2920
공선식	91	영원무역	359-5901
김미림	91	프로메이트	373-3920
김수연	91	크레송	457-5325
김원주	91	선경	544-1113
김은영	91	E-LAND	385-4619
김훈정	91	영원무역	743-3829
박연희	91	PBMS	557-3593
박유경	91	DECO	644-3330
서경숙	91	삼성물산	695-0917
설호정	91	게스	542-4978
윤영주	91	E-LAND	387-5454
윤자현	91	소바쥬	883-6670
이선희	91	폴로	
이소라	91	색연	032-513-4201
이수연	91	선경	604-3282

이 지 은	91	센스	333-5676
이 현 아	91	구찌	593-0202

■ 건축계(전원 건축학과 졸업)

김 인 숙	65	효성 드라이버트	518-3014
오 경 은	72	피아건축	927-3236~8
송 경 숙	73	Texas Instruments	551-2895
유 난 형	73	두메건축	561-8497
손 태 옥	74	두우건축	549-2701
조 성 희	76	부산대가정관리학과 교수	510-1717
우 성 숙	77	동우건축	576-7232
김 정 선	78	신구조	782-4896
윤 재 옥	80	동우건축	376-7232
이 인 옥	80	클래스트라 하우저만	784-6274
고 은 영	83	간삼건축	745-7161
이 명 환	83	금호그룹	752-5487~8
송 인 옥	84	아키반	764-3072
주 태 옥	84	창조	632-0311
김 찬 주	85	Hyper Cube	514-5181
김 진 아	85	새우설계실	771-3700(323)
배 완 덕	85	정림건축	762-9681~7
이 유 미	85	주택연구소	513-3831
나 신 연	86	우일건축	521-9721
신 유 진	86	에스박스 두우517-9721	517-9721
이 주 은	86	임이건축299-2811	299-2811
임 은 영	86	정림건축 762-9861~7	762-9861~7
정 성 실		서울건축783-7331	783-7331
김 정 임	87	인제건축 762-7092	762-7092
박 주 영		우원건축	
이 성 아		서울건축783-7331	783-7331
김 희 정	87	대우건설	
양 보 인	87	서울건축783-7331	783-7331
김 진 희	88	주)대우/남산건축 771-0367~8	771-0367~8

■ 연구소

윤 주 형	72/용봉	국토개발연구원	784-2560
이 선 애	74/용봉	한국개발연구원	960-4811
김 은 영	75/용봉	과학기술정책연구소	762-8801
이 은 우	82/경제	한국개발연구원	960-4811
이 계 임	82/용봉	농촌경제연구소	762-7312

노 현 주	84/용봉	산업과학기술연구소	399-6142
이 현 아	84/용봉	한국토지개발공사	583-0557

■ 금융계

서 연 정	88/영문	Banker Trust Company	
이 연 수	88/수학	"	
김 윤 경	88/영문	"	
조 은 희	88/사회	"	
조 은 영	89/경영	"	
최 영 미	86/영문	Standard은행	757-5131
이 정 희	89/영문	"	
권 혜 숙	88/영문	파리바은행	
최 미 영	89/가정	"	
성 진 희	90/불문	"	
조 희 정	86/불문	Fical은행	733-4163
이 은 경	86/경영	"	
아 윤 경	85/경영	"	
이 선 희	85/불문	파리국립은행	753-3214
김 미 영	86/불문	"	
정 승 은	82/영문	캘리포니아은행	736-5431
윤 신 원	81/불문	"	
최 은 숙	78/사회	보스톤은행	734-3558
이 현 주	88/신방	"	
강 성 희	92/영문	"	
노 묘 정	92/영문	"	
서 명 례	78/경영	씨티은행	
오 성 주	80/영문	" 마케팅부	
김 영 립	81/경영	"	
이 회 경	84/경제	" Trops	
김 경 숙	79/사학	" Credit	
이 은 주	83/식생활	" Export	
노 차 영	84/의생활	" CSG	
송 완 숙	87/경영	"	
조 윤 정	88/경영	" GCMS	
남 숙 희	88/수학	" 수출입과	
안 희 숙	80/경제	외환은행 과천	
임 정 순	81/경제	" 심사부	
이 은 미	87/전산	" 인사부	
곽 화 진	87/체육	" 신촌	
이 미 영	88/도서관	" 조사부	
김 현 아	89/국문	" 서소문	
박 선 옥	89/정외	" 세종로	
권 수 미	90/도서관	" 광화문	

김 선 란	90/불문	여의도
박 민 회	90/아동	남대문
조 현 숙	90/독문	영업부
조 봉 숙	80/사회	조흥은행 연건동
박 경 서	81/수학	비서실
박 인 숙	79/사학	한일은행 화양동
고 정 숙	88/사회	상업은행 여신기획부
금 향	86/경제	
정 명 선	91/수학	전산부
권 미 정	90/사회	남대문
김 정 립	87/사학	광화문
석 순 이	86/경영	한미은행 자금부
박 성 미	85/영문	" 원효로지점
박 양 숙	87/경제	"
정 명 조	87/경제	"
오 명 회	77/간호	한국은행 후생과
도 보 은	82/영문	" 비서실
최 선 미	84/임상	" 후생과
문 소 상	84/응통	"
정 현 자	87/영문	로이드은행 비서실
이 지 선	87/영문	LC
전 재 숙	82/식생활	서울신탁은행 명동
원 영 미	88/국문	" 홍보실
허 영 은	85/식생활	중소기업은행 남대문
권 선 주	78/영문	"
장 미 숙	87/중문	"
최 미 숙	86/중문	국제은행 대부계
조 회 정	86/불문	" 자금부
김 소 향	88/불문	" 자금부
여 은 경	84/불문	" 국제부
도 현 옥	85/영문	" 수출계
지 성 애	74/영문	The 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
이 미 경	84/독문	체이스맨하탄
김 정 회	83/경영	"
윤 은 자	87/영문	"
김 정 회	87/경영	"
노 미 경	88/영문	"
곽 수 영	88/영문	"
황 경 숙	83/경제	엠마수에즈
김 지 은	86/경제	신한은행 기획조사부
이 은 경	86/경제	하와이은행
최 지 영	86/경제	제일은행 국제부
김 효 진	88/경영	미쓰비시신탁은행
이 상 경	86/경영	교와사이티마은행

■ 유아교육계(전원 아동학과 졸업)

최 송 립	78	상아 유치원장	0562-6-4851
진 양 회	79	색동 몬테소리 학원장	0343-22-3804
이 순 이	80	필벽재단 카운셀러	614-6592
김 은 기	81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393-1396
윤 재 숙	"	자인유치원	793-6424
이 경 애	82	한국여성개발원 직장 시범탁아	356-0070
김 혼 숙	"	한국어린이 보호회	0343-45-0367
이 미 화	"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960-0895
백 은 주	85	은평유치원	384-0656
홍 미 영	"	별나라 어린이집 원장	365-0782
노 인 숙	86	인천 이화유치원	384-0636
이 재 선	"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교사	933-4356
강 원 경	87	한국어린이육영회 시범유치원	417-8932
김 양 숙	"	서울 YMCA 근로회관 여성 어린이 교육부	
원 경 록	"	봉천동 근로 여성 복지회관	871-0234
이 경 례	"	사회체육센터	482-1105
정 연 정	"	UNICEF	722-6481
최 혜 영	"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교사	356-8685
김 연 경	88	석촌유치원	414-6692
김 혜 경	"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350-1492
노 현 미	"	홀트 아동 복지회	677-3496
유 은 영	"	한영유치원	303-3590
김 미 정	89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833-3013
김 연 화	"	자인 유치원	73-8932
박 진 재	"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354-5356
정 미 라	"	라보 교육센터	032-427-5856
김 영 미	90	영은유치원	357-0706
신 소 영	"	사회체육센터	373-9335
표 선 숙	"	태화사회복지관	734-4772
변 순 미	91	원일 유치원	646-4265
안 경 회	"	자인유치원	571-3838
안 효 진	"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교사	555-7009
전 혜 경	"	한영유치원	426-1697
최 흥 숙	"	한국 소아신경정신과 유치반	393-7746
오 승 혜	92	홍대 미술 유치원	643-8700
임 양 미	"	시원유치원 Part-time	352-7589
허 점 순	"	상명유치원	742-6524
서 문 옥	93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0343-49-0975
최 은 영	"	시연유치원	587-7559

■ 영양사 (전원 식생활학과 졸업)

지 선 회	68	부산여전 식품 영양학과	82-0071-4
김 경 회	69	백병원 영양과장	553-6401
임 현 숙	70	세브란스 영양과장	373-1652
서 은 경	71	영동 세브란스 영양과장	574-2490
김 은 희	74	경희 의료원 영양사	555-9501
박 정 선	76	롯데 호텔 영양사	806-0561
이 정 숙	76	고려병원 영양사	393-5057
이 순 동	77	충남대 병원 영양사	253-6831
김 회 정	78	세브란스 영양사	392-0161
손 정 숙	"	대한영양사 협회	842-2446
김 경 숙	79	김포 중앙 병원 영양사	386-4847
류 은 숙	80	연대 총무과 영양사	384-3484
이 정 수	"	세브란스 영동병원 영양사	557-9594
정 태 영	"	외환 은행 연수원 영양사	557-2170
조 창 숙	"	한강 성심병원 영양사	423-0923
엄 영 란	81	세브란스 영양과	647-5036
김 정 숙	82	치안본부 영양과	591-8918
김 형 미	"	세브란스 영양사	884-0714
박 정 순	"	영동 세브란스 영양사	557-1738
이 세 정	"	인천 세브란스 영양사	388-4104
이 향 숙	"	세브란스 영양사	879-0171
최 선 정	"	고대 구로 병원 영양사	682-0856
김 정 남	83	세브란스 영양과	374-2556
김 영 숙	84	고대 구로 병원 영양사	993-4824
박 경 해	"	대한 임상병리과 영양사	363-1761
이 선 회	"	영동 세브란스 영양사	526-6817
정 유 정	85	세브란스 영양사	694-6721
강 은 희	"	영동세브란스 영양사	593-7685
김 인 서	"	순천향 병원 영양사	502-7433
심 명 진	"	금강 고려 화학 영양사	543-2101
하 남 용	86	한국 화약 배어링 영양사	718-0009
김 현 아	87	일신 병원 영양사	389-9007
김 현 주	"	한국화이자 영양사	656-5387
김 혜 진	"	여의도 성모병원 영양사	965-9108

■ 기업체

성 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 화 번 호
남 상 태	67 상학	유니온카바이트	792-2143
김 인 숙	81 경제	데이콤 부가통신사업부	220-7262
김 윤 미	82 경영	STM	789-0946
김 인 혜	82 경영	Tupperware	745-4290
최 경 옥	82 경영	M/B상사	745-8663
손 민 경	82 경영	호주대사관	730-6491
홍 현 옥	82 경영	대우증권	305-2846
최 미 애	82 경제	대우전자	602-1337
이 원 규	83 경영	대우증권	778-5116~9
김 은 희	83 경제	도서출판 삶과 꿈	319-3791
방 비 영	83 융통	대한항공	784-9515(338)
윤 숙 자	83 융통	대우정밀	
이 순 미	84 경영	쌍용정유 경영관리부	270-6028
조 성 회	84 경영	다이너스클럽 코리아	590-0662
신 경 주	84 경영	대우건설 인사부	759-3055
이 지 수	84 융통	한국 IBM	94-4166

※ 여동문 주소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소록에 빠져있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여학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록은 여동문회 행사안내 및 회보 발송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 여학생처 / Tel : 361-2136, 392-3673

Fax: 392-3673

연세백양 제 1집을 내고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제 2집에서는 아쉬움없이 명실공히 동창회지로서의 그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하는 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변명 같지만 책을 만드는 일과 동시에 다른 여러가지 일이 벌어져 편집진들이 동분서주 하다보니 제 1집보다 더 소홀하게 되어버렸다. 직업별 주소, 일반동창들의 주소를 성실히 파악해서 동창간의 교통을 돕고 그 연계망을 강화하려던 목적도 생각만큼 되지 못했다. 부족한 점을 반성하면서, 제 3집은 정말 동창들의 삶과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과 특히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황세경선생님, 현지혜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후애주)

입 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이 한편의 책이 2만여 연세 여동문을 묶어주는 큰 힘이 되리라는 보람에 세월가는 줄 몰랐다. 연세 캠퍼스에서 보냈던 꿈많은 싱그러운 대학시절! 학문의 정진과 젊음의 고뇌,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해안을 키우고자 보낸 그 소중한 시간들의 힘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탱해온 버팀목이 되었으리라.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을 한 전통의 대학, 기독교 정신을 불어 넣어주는 그 대학에서 우수한 두뇌의 여학생들이라는 자긍심에 4년을 보냈지만, 송자 총장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과연 다들 어디로 Fade Away 한 것일까? 우리는 대학 문턱을 나와 저마다의 사명을 안고 바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가쁘게 지금까지 달려왔다. 평범한 여성의 삶으로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전공을 살리며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들! 비록 연세 캠퍼스에서 그렸던 아름답기만 한 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더라도, 우리가 달려온 그 소중한 시간들은 우리 삶의 귀한 부분이다. 우리는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함께 공부하던 동창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진다. 또한 우리는 재충전이 필요하며, 인생재도의 점검이 절실하며, 그리고 제도 수정이 요구될 때도 있다. 이제 우리 연세 동문들은 각자 개체로 흩어져 있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Nostalgia 연세 캠퍼스로 다시 모여 삶의 활력을 되찾자! (황세경)

양로를 뱃심던 2만여 연세 동문들의 회비를 준비하면서 인연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연세에서 보내왔던 소중한 시간들이 오늘 '연세백양'과의 인연으로 이어져 그날의 기억이 새삼 새롭다. 현재 백양로와 인연을 맺었던 그날의 얼굴들이 '연세백양'과 함께 그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금 이어 가기를 바라며 제 2호를 마감한다. (현지혜)

회비 납부안내

평생회비를 납부에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3년 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에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님께서 내시는 회비는 장학사업과 여동문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회비 : 년회비 10,000원
평생회비 100,000원(년회비가 면제되며 분할납부가 가능함.)
2. 납부방법 : 한일은행 온라인 계좌
126-357575-01-001 연세여동문회

92,93년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서정도(신과대), 주동금(법과대), 김명원(이공대), 양경자(음악대), 전해경(최신자 강경화 김영란 왕세경(사회과학대), 남지연 양은선(문과대), 김정식(생활과학대), 임정심 김명희(교육과학대), 김용진 최규옥 김경희(의과대), 백일수(치과대), 홍정혜 김영자, 김윤희(간호대)



사람들이 좋다
OB가 좋다

마음을 열면
친구가 되는 얼굴,
젊은 얼굴들 —
사람들이 좋다.
OB가 좋다.

